

간디N

2018 여름

더불어 행복한 사람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피스



김재하 삼화기자(4학년)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다,



W- 위시코트 캠페인 코트 기증식, 농구 하나로 간디인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정이 대동제가 끝난 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김재하 삼화기자(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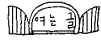


차례

- 간디인 갤러리 피쓰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다. :: 김재하 삼화기자(4학년)
- 02 여는 글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 최유경 편집장(5학년)
- 05 특집 우리는 필요합니다. :: 김서준 기자(2학년), 조예나 기자(1학년)
- 당신은 누구십니까. :: 이한결 기자(5학년)
- 썰 풀겠음! :: 윤수민 기자(4학년)
-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 :: 박우제 기자(4학년)
- 학교에 콘돔이 왔어요~ :: 권윤서 기자(3학년)
- 35 m.s.g 오늘도 우리가 바라던 코트에서 땀니다. :: 이재형 기자(5학년)
- 39 화제의 인물 알뜰살뜰 :: 조연지 기자(4학년)
- 44 반가워요, 후원인 제천간디학교의 든든한 뒷 뺨, 그는 바로
:: 이성민 기자(3학년)
- 50 개 요즘 잘 지낸대? 스물이기 때문에 :: 12학년 졸업생 신동현
- 53 간디인의짧은소식
- 56 스케줄러
- 60 기자 후기



그림 · 미스터 김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최유경 편집장(5학년)

지난 5월 10일, 홍익대학교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여성 피의자가 긴급 구속되었습니다.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사흘만에 31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 을 아시나요? 실제로는 유색인종의 실종이 훨씬 많지만, 백인 여성의 실종이 드물기에 되려 언론이나 시민들의 주목을 받아 빠른 사건 해결을 보이는 양상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피해 성별 비율의 8%도 되지 않는 ‘남성’ 이 피해자인 일명 ‘홍대 몰카’ 사건은 언론의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늘 무능했던 경찰은 순식간에 20명의 용의자를 추려내 일일이 조사했고, 범인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구속된 사람은 135명(3.0%)에 그칠 정도로 구속 수사 비율은 낮습니다) 피의자가 한강에 던진 휴대폰을 애타게 찾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수집까지 나섰습니다. 그 열정에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이례적으로 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의 얼굴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혐 목적이었습니까?”

2017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1~8월 동안 약 3천 914건이었습니다. 이 중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3천 329건으로, 90%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피해 당한 여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고하고 토론했죠.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피의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에게 돌아온 2차 피해였습니다. 전체 2차 가해 중 가족으로부터 받는 2차 가해 44.5%,

직장에서 받는 2차 가해 18%, 이번 사건에서 그토록 기민하고 유능했던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는 무려 17.5%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기소유예박에 안 될거다, 찍혔다는 증거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옷을 짧게 입었냐 등등... 도 넘는 질문으로 2차 가해 받았다는 이야기가 포털사이트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여자가 싫어서 살해했다, 라고 진술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혐이 아닌 묻지마 살인 사건이지만, 여성 피의자에게는 남혐이냐며 직접적으로 묻는 것처럼요.

이쯤에서 피해자가 여성이었던 (수많은) 예 중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지난 2017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가 지

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번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휴대폰의 카메라가 저절로 작동했다는 진술로 큰 웃음을 주었죠. 하지만 불구하고 입건된 후에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조사를 미루는 사이 분야만 옮겨 계속 사건을 맡았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겨우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뿐일까요? 지난 5월 14일, 홍대 몰카 사건에 이어 한국항공대 단체 카톡방에 한 남학생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학생은 여자친구에게 보낼 것을 잘못 보냈다고 진술했고, ‘고의성 없음’ 이 경찰에 받아들여 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여성의 얼



굴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는데도요. 지난 9일, 경기도 소재의 한 여고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20여 장의 사진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대 몰카 사건만큼 우리에게 알려졌나요? 물론 일부에게는요. 이 사진을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포르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했습니다. 홍대 몰카 사건은 5월 10일, 경기도 여고 사건은 9일에 일어났습니다. 하루걸러 일어난 두 사건의 온도 차가 참 극명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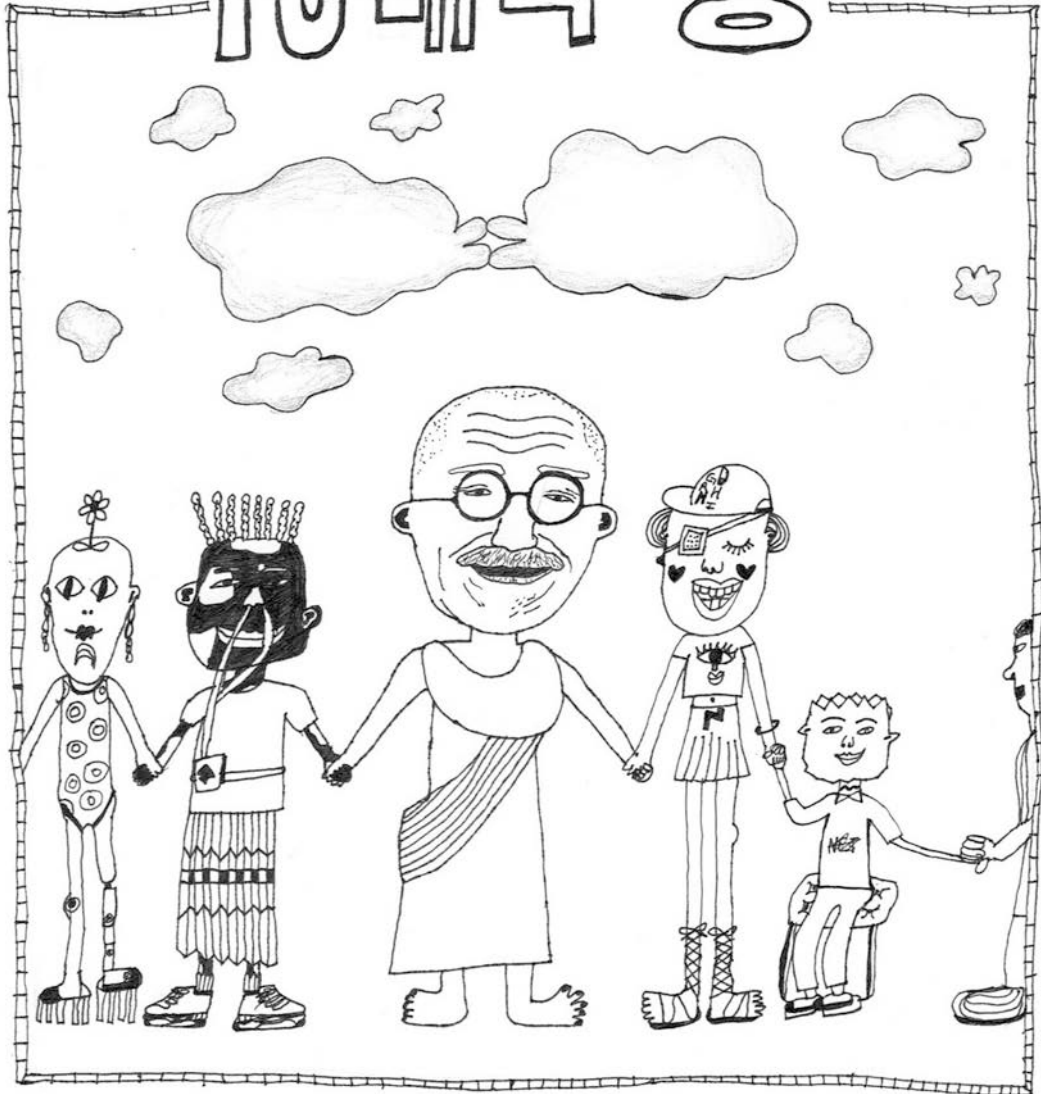
물론 경찰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연하게도 '언론'의 보도 행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으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판단하고 그것으로 여론이 형성되니까요.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사건은 곧 경찰을 향한 여론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압박이 큰 사건은 그만큼 해결도 빠릅니다. 실제로 서울지법에서 근무했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경찰이) 언론에 나온 사건을 되게 중시하는데, (여성 피해자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여자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 수사도 안 하고 (그랬던 거죠)"라며 한 인터뷰에서 홍대 몰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의 언론은 어땠나요? 사건 해결에 성차별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단순 남

녀 편 가르기로 매도합니다. 2016년 몰카 피의자로 구속된 남성은 151명, 이 중 언론에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는 없었으며 대부분 보도되지 않거나 짧은 단신 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홍대 몰카 사건은 다들 보셨다시피, 많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비중 있게 올랐죠. 게다가 한 방송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을 속보로까지 내보냅니다.

궁극적으로, 필자가 이 글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의 무능이나 성차별이 아닙니다.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얼마나 중요 한지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함부로 공공 화장실조차 가지 못합니다. 화장실 곳곳에 뚫린 구멍들 사이로 수많은 시선이 여성을 지켜보기 때문이죠. 여초 사이트에는 어느 역 화장실의 어디에 몰래카메라가 있더라, 내가 송곳으로 부숴버렸다, 몰카 구멍 막는 데에는 이 접착제가 좋더라는 글들이 일종의 연대처럼 바쁘게 올라옵니다. 이 여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경찰도, 언론도 아닌 우리의 관심 어린 시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받았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의 용기입니다..👉



10대의 성



이한결 최유경 최문형 박우제 권운서 김서준 윤수민
이담 조예나 최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0대의 성' 우리의 성은 안녕하십니까?
때로는 솔직하고 때로는 거침없게 파헤쳐보는 간디의 성문화.
일상다반사와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필요합니다.

김서준 기자(2학년), 조예나 기자(1학년)

이번 기사는 앞에서 보았던 사실과 다르게 ‘학교 밖의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 밖의 성문화에 대해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이하 대페넷)가 떠올랐고, 대안학교의 성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저희의 기사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페넷은 대안학교 성문화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작년 8월에 결성되었고, 총 운영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인터뷰 보실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고: 저는 꽃피는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졸업을 했고, 아고라고 합니다.

뽕브라: 저는 꽃피는 학교에서 12학년(19살)으로 재학 중이고, 졸업반인 뽕브라라고 합니다.

유예: 저는 성미산학교를 11년 동안 다니다가 올해 졸업을 했구요. 이유예라고 합니다.

대페넷이 결성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고: 작년에 교육공동체 ‘나다’ 라고 청소년인 문학 교육을 하는 단체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여름 특강을 진행했어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안학교 학생들도 온 거예요. 거기서 학생들이랑 학교 교육에 대해 불만적인 점들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시작 되었어요.

이름에 ‘대안학교’ 가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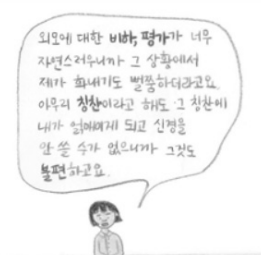
유예: 대안학교라는 특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한다고 했을 때 비인가 대안학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또 교사마다 수업내용이 엄청 바뀌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아 대안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야지만 설명될 수 있는 차별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아고: 작년에는 학교에서 어떤 차별들을 경험했는지 알기 위해서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 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를 올려주셔서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개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같이 겪고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을 때 학교에서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 했어요. 올해는 그 활동의 연장선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수다회와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 대안학교 속에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고: 저는 한 학교를 쭉 다녔기 때문에 다른 학교 사정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천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꽃피는 학교에도 여성주의 책모임이 있듯이 대안학교에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배움의 욕구가 높아지고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뽕브라: 이제껏 배제되어 왔던 신체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제일 크게 혐오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혐오이고 이것이 혐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된다면 한층 더 우리가 바라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아고: 단지 성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가 성평등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학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성문화 중에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있으신가요?

유예: 대안학교 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안학교는 진보적이라고 여기는 공동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 알고 같이 지내왔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반학교 학생 포함) 현재 10대들의 성(性)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나요?

아고: 어느 문화권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반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성인식이 낮은 것도 아니고 대안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성인식이 다 높은 게 아닌 것처럼. 그래도 다른 페미니스트들이나 일반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확실히 2015년에 페미니즘이 리부팅 되고 2016년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있고난 후에 2017년에는 학교에서 페미니즘 모임이나 활동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아고: 요즘에는 확실히 정보가 많아져서... 책도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읽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헤드워>이랑 <런던 프라이드> 추천할게요.

유예: 저는 <걸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추천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뽕브라: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책을 추천하고, <가족인권시리즈>도 되게 재미있어요.

페미니즘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고: 페미니즘을 고민하다가 흑백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하면 안 되고, 다이어트 하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이

러면 도대체 누가 페미니스트 되겠어요(웃음).

유예: '예쁘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면 페미니스트가 아닐 것 같다.' 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다.' 든지 같은 고민에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은지'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필자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지금 대안학교 성문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성(性)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깨달았습니다. 일반학교에 비하면 덜 하지만 아직 대안학교 속 성문화에도 변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고, 교사들에게는 젠더 감수성이 필요하며 학교에는 성평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바뀌나가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많아서 막막해 보이지만 천천히 하나씩 바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 이루어져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사는 잘 보셨나요? 기사에서 잠깐 언급 했었는데요. 대페넷이 작년에 진행했던 성교육 개편 설문지를 들고 왔습니다! 총 6개의 대안학교와 졸업생들이 설문지에 참여 했고 저희 학교도 작년에 설문지에 참여했었습니다. 총 358개의 설문지 결과 중 제천간디학교에서 나온 57개의 결과를 통계 내어 그 중 재밌는 답변들만 쑹! 쑹! 뽑아보았습니다. 그럼 결과 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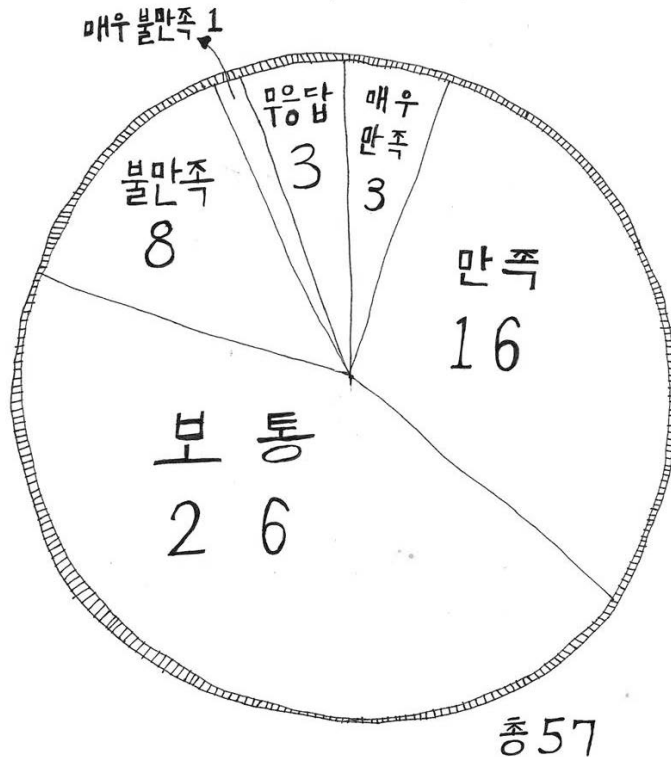
1. 그동안 받은 성교육이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족	보통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한 학기에 한 번은 너무 적다. • 전에 몰랐던 거나 궁금했던 걸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 만족한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아서 좋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아는 내용이라서 보통이었다. • 그냥 한 번씩 복습하는 느낌이다. • 딱히 기억에 남지 않고 매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다. •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보통인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거의 알고 있는 것이고 후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 • 진부함.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2. 이외에 성교육에서 변화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나요?

횟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 자신의 문제, 지금 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	여자, 남자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종교를 무시하지 마라.
성교육에서 상식적인 것만 아니라 퀴어, 젠더 등의 성들도 알렸으면 좋겠다.	담임선생님 말고 외부강사를 불러 줬으면 좋겠다.	좀 더 현실적인 선배의 조언처럼 여러 성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더 직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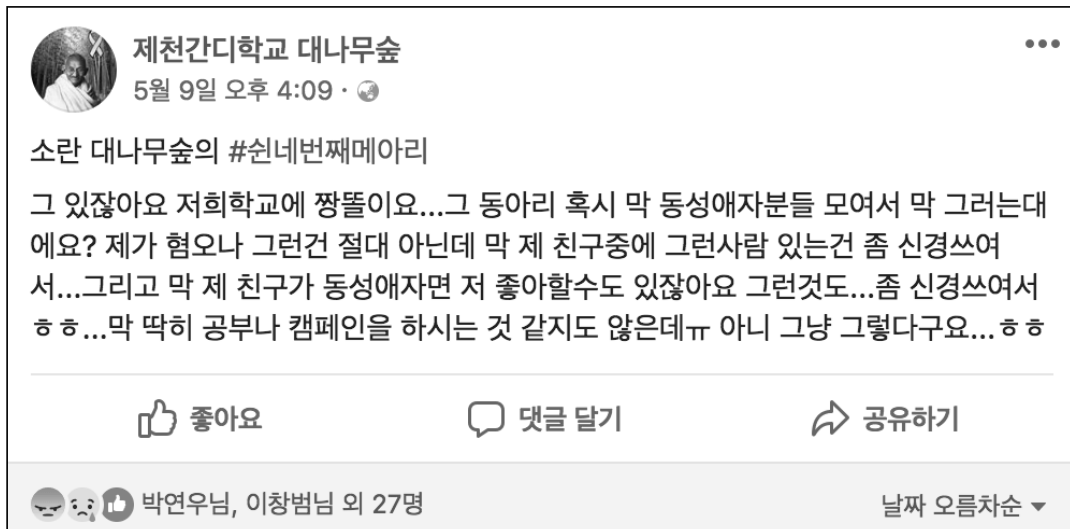
그동안 받은 성교육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내용, 전달 방식, 횟수 등)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한결 기자(5학년)

2018년 5월 9일, 제천간디학교 대나무숲¹⁾에 글이 올라왔다. 교내 성소수자 동아리인 짱뿔을 비롯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며칠 간 학교는 이 익명의 글로 인해 시끌벅적 했다. 누군가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재단되는 심각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까? 1년 거슬러 올라간 2017년, 교내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가시화 되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성소수자와 젠더구조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왔다.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하던 여성/남성 이분법적, 이성애 중심적 사고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과 무지함 속에서 목소리 내는 간디인들을 위해, 또한 아직 차별에 '무지' 한 우리를 위해 일상다반사가 나섰다.



1. 익명으로 글을 접수해 대신 올려주는 페이스북 페이지. 2017년 개설된 이후 학교의 대한 불만부터 질문, 고백등 다양한 사연의 글이 익명으로 올라오고 있다.



1장.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

이다솜 (3학년)

가장 먼저 만날 간디인은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두 명의 학생 중 하나인 다솜이다. 다솜이는 젠더퀴어²⁾와 범성애자³⁾이며, 더 확고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2017년 모두에게 커밍아웃 후,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해 목소리 내고 있는 다솜이를 만나 본인이 바라보고 겪어가고 있는 학교를 물어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더라. 커밍아웃했던 순간은 기억나?

주여시간때 짜여진 주제를 무시하고 커밍아웃을 위한 발표를 준비했어. 먼저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젠더퀴어에 대한 설명과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두에게 얘기했지. 솔직히 말하면 자세히 기억이 안나 (웃음)

여성으로 살아왔던 예전 삶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젠더퀴어가 된 과정이 궁금해.

어릴 때를 돌아해보면 나는 호모포비아⁴⁾였던 것 같아.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건 이해하지만 내 옆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 하지만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 성 정체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을 즈음 누군가가 내게 커밍아웃을 했어. 본인이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이야. 그때부터 나의 성 정체성에 의심이 갔던거지. 내가 존경했던 여자선배가 있었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지, 연애적 감정으로 끌림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더라고. 그 후로 고민과 공부를 거듭해서 결국 어느정도 정체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적은 있었어?

사실 이것도 잘 기억이 안나.(웃음) 다행히 우리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별로 없잖아?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좋지 못한 말이나 인식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 그 덕에 내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순간이 많았지. 좋지 못하게 생각했던 성소수자가 알고보니 나였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도 있었거든. 그렇지만 나에게 커밍아웃한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내 곁에 있단 걸 알게 되니까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

2.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이분법적 성별 구성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을 모두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3. 범성애란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관계 없이 어느 것이건 사랑할 수 있는 성적지향을 뜻한다.

4.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극단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모두에게 커밍아웃하기 전에 미리 털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

우선 우리반 친구들 몇 명에게 얘기 했었어. 부모님한테는 커밍아웃 하기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끝났거든. 아직 까지도 부모님이랑은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야.

커밍아웃 후 삶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아?

내가 불편했던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지. 평소 여자/남자로만 나누던 많은 문화들을 조금씩 바꾸려 노력하더라고. 인식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다들 좋은 쪽으로 같이 고민해주는 것 같아.

성소수자로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느끼는 불편한 점은 뭐야?

우선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너는 어떤 남자 좋아해?”, “저 여자 예쁘지 않아?” 등의 말과 인식 말이지. 또한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남으로만 나눠서 응답하게 하는 설문지 같이 여성이 되어야 하는 순간들을 인정하게 될 때가 오면 기분이 우울해져. 아직 나는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보니 ‘그래서 너는 대체 뭐데?’ 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이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 오직 남/녀로만 분리되어 있는 시설도 불편해서 논문도 그런 방향으로 쓰게 됐어.

5월에 올라온 대나무숲 글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무지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

직접적인 혐오발언이나 행동을 겪은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끼리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농담을 하는 걸 들은 적 있어. “너 게이냐?” 라는 식의 말로 서로를 놀리는 게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짱뚱로 활동하는 소감은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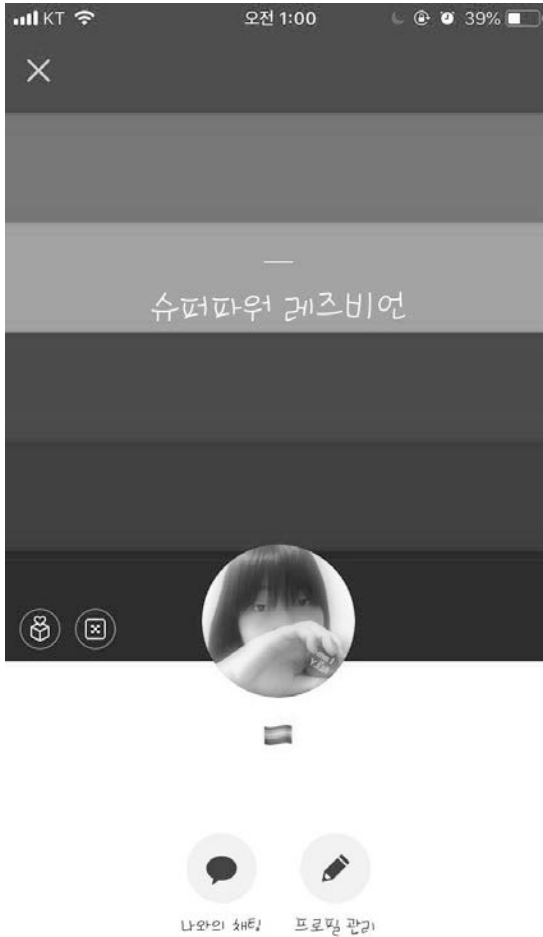
나 같은 성소수자들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하다보면 생각정리도 되고 전체적으로 성숙해지는 느낌이 들어.

요즘 들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뭐야?

성소수자가 과연 소수자인지 고민하고 묻고 있어. 그리고 성별 이분법적인 기숙사 시설도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

앞으로 간디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성소수자들이 아직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걸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커밍아웃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전현주 (2학년)

올해 5월 커밍아웃을 한 현주는 현재는 바이섹슈얼⁵⁾이며 호모로맨틱⁶⁾이다. 현주에게도 성소수자로서 겪는 학교 생활과 문화를 물어볼 수 있었다.

예전 삶에서 너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깊게 할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 나는 여

자지만 여자가 좋고 여자랑 연애하고 싶은거야. 그런 고민 끝에 지금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착각하고 있던 생각도 들었어. 여자와 가깝게 지내니까 이런 감정이 잠깐 드는거 같아. 가도 지나가는 감정은 아닌거 같더라고. 그래서 더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걸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 커밍아웃까지 하게 됐던 거지.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 커밍아웃을 하는 상황까지 오기까지 힘들었던 적은 있었어?

커밍아웃하기 전 올라왔던 대나무 숲 글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니까 걱정되기도 했어. 친구들한테 먼저 커밍아웃 하려다가 겁나서 말할 타이밍을 놓칠 때도 마음이 힘들었지. 그리고 여자 기숙사에 살면서 쉽게 동성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 같이 놀다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혼자 지냈던 시간이 많았어.

모두에게 커밍아웃하기 전에 미리 털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

짱플 회원들에게 미리 말을 한 상태였고 우리반 여자애들한테도 얘기했었지. 부모님한테는 얘기하기가 매우 겁났어. 예전에 은근슬쩍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 그래서 감정에 이끌리듯이 털어놓았는데 다행히 이해해주셔서 괜찮았어.

5. 양성애. 동성이나 이성 모두에게 성적지향이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6. 동성에게만 로맨틱한 끌림을 느끼는 지향성.

커밍아웃 후 삶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아?

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던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불편한 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성소수자로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느끼는 불편한 점은 뭐야?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면 듣는 질문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오빠가 누구야?” 라는 질문이 있어. 나는 남성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걸 당연하다 받아들여야 하는게 불편하더라고. 또한 남자와 여자애가 조금만 붙어있더라도 그걸 이성애로 엮고 놀리는 등 전반적인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불편한 것 같아.

앞으로 간디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누군가가 커밍아웃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 편견 없이 대해줬으면 해. 성소수자는 희귀하거나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곁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차별적인 행동도 조심했으면 좋겠고.

네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

대나무 숲에 글을 올렸던 분 같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직 성소수자가 낯설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동체였으면 해.

두 친구와 함께 들여다 본 학교는 성소수자의 대한 이해를 멈추지 않지만, 여전히 당연스러움이란 이름의 차별과 혐오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성소수자는 대하기 껄끄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한 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생각했던 인식들이 차별로 기능하고 있다. 설문지부터 더 나아가 기숙사까지. 정체성은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한 문화속에서 성소수자는 배제되었다. 마치 학교에는 성소수자가 없을거라는 인식, 성소수자는 괴상하고 우스꽝스럽다는 인식이 낳은 장난들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부정하는 꼴이 된 셈이다. 왜 우리는 꼭 여자와 남자를 나뉘어야 하고,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걸까? 차이를 구분짓는 순간부터, 차별이 시작된다. 학교,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남성에 대해 피해쳐보자.

2장. 대체 여자/남자가 뭐길래.

♥ ‘역할’ 은 누가 정하는 거죠?

[그림 1]과 [표 1]은 교내에서 여성/남성의 역할이 부여되거나 강요되었던 사례와 빈도를 취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처럼 ‘나는 학교에서 여성/남성의 역할을 강요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는 응답한 68명중 37명(54%)가 ‘그렇다’ 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그림 1]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강조하고 지시하는 경우

대체 여자/남자가 뭐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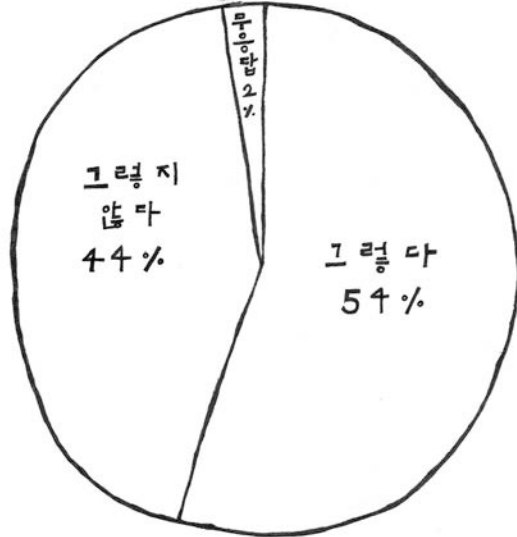
-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는게 맞는거라고 당연하게 말하시는 쌤.
- 식당쌤들이 무거운 밥줄을 들때 남자애들만 부른다.
- 쌤 한분이 어떤 오빠한테 남자가 여자같이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냐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오빠 표정이 엄청 당황한 표정이였다.
- “쌤리학교는 성차별 없으니까 여자애들도 무거운거 들어~” 라는 식으로 비꼬아서 힘든일을 시킨다. 정말 무겁다.
- 여자애가 그렇게 입이 거칠어도 되는거야? 라고 말한 선생님.
- 남자는 이래야지, 남자는 ~ 다라는 말
- ‘남자다운’ 행동을 못하면 꼬투떼라..
- 성격이 여성스럽다. 차림새가 남성스럽다.. 등의 말
- 학교에서 합숙을 하면 맨날 식단은 여자애들보고 짜라 하고 식사준비도 여자애들이 한다.
- 여자애들은 이래, 남자애들은 이래, 라는 말과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다.
- 여성의 옷차림을 유독 심하게 규정하고 나무란다.
- 성별에 대한 질문이나 존중없이, 남자가같이 생겼다 싶으면 남자, 여자같이 생겼으면 여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차림새를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림 1]

를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힘쓰는 일’과 ‘살림하는 일’에 대한 구분부터, “남자라면~ 해야 돼” 라는 말 등 다양한 형태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이미지가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지적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라는 변명이 따라붙기 마련. 이 역시 ‘평균’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역할을 고정시키게 되고, 평균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에게 신기함 또는 이상하다는 시선을 가지게 한다. ‘그냥 힘쓰는 일에는 남자만 부르면 되겠지’ 하는 식의 판단은 효율성을 가져올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외감과 무력함을 주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남성/여성의 역할을 강요 또는 요구 받은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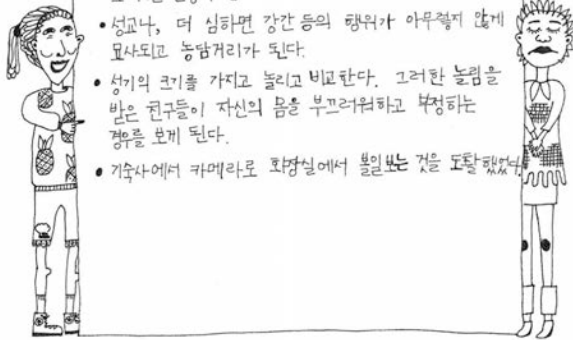
[표 1]

♥ 욕하는 여자애, 매니큐어 바르는 남자애.

성역할을 고정시키기 위해선 행동과 외모도 지적받고 규제받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경우인 ‘매니큐어를 바랐던 남학생’이 꾸중을 받은 사례부터, 일상적인 말 속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역할이 깔려있었다. “너 성격이 되게 여성스럽다”, “여자애가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 라는 말들은 본인의 성차별 인식을 드러내는 셈. 이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지적도 잦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치마를 입으면 다 여자일까? [그림 1]에서 지적된 사례들처럼 우리는 외모를 통해 성별을 인식하고 강조하게 된다. 더 확장해서 지적하면 우리가 일삼던 외모평가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가슴이 작다고 놀림 받는 경우는 여성뿐이고, 어깨가 좁다고 놀림 받는 경우는 남성

폭력을 폭력이라 부르지 못하고

- 내가 처음부터 남자기속사에 살지 않았다면, 가족의 몸을 림프로 먹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 아무렇지 않게 성기와 신체부위를 만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볼썽하다.
- 하지말라고 했는에도 만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
- 항상 나의 몸이 만져질까봐 긴장하게 된다.
- 남은 남자한테 하는 말이고, 녀은 여자한테 하는 말이라면서 ~년이라고 우릴 불렀다. 년인데 년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면서 장난 친 쌤이 있었다.
-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 발언. 성적 농담.
- 외국에서는 동성이 같이 있다고 해서 몸을 맘대로 보여주거나 옷을 아무데서나 벗지 않는다. 그런 굉장히 실례인 생각이고. 남자/여자 가족사를 따로 살여라도 그러한 존중이 필요하다.
- 성교나, 더 심하면 강간 등의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묘사되고 농담거리가 된다.
- 성기의 크기를 가지고 놀리고 비교한다. 그러한 놀림을 받은 친구들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부정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 기숙사에서 카메라로 화장실에서 뽀는 것을 도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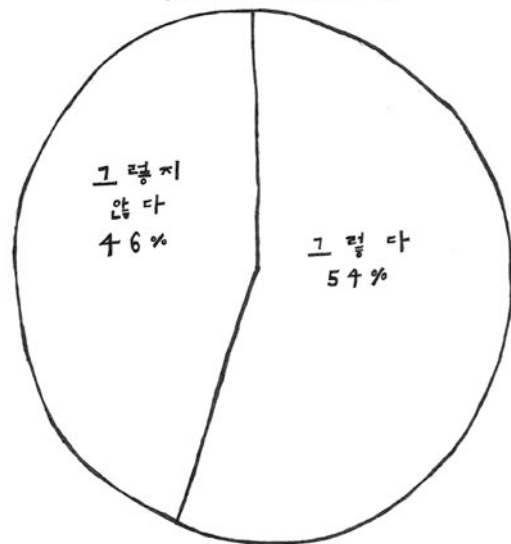
[그림 2]

뿐이지 않은가. 무심코 하던 외모평가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작동하는 평가이고, 기준에 어긋나거나 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역할을 부여한다는 건. 누군가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침해될 수도 있는 무서운 차별이다. 여성/남성마다 특성이 있다면, 여성과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닌걸까? 계속해서 이분법적인 성역할이 유지된다면, 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 또는 성역할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정당하고 배제된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지는 소리가 아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파악하고, 성별 때문에 삶을 억압하고 있는게 무엇인지 민감해져야 한다. 앞서 거론된 수많

60명의 학생응답

나는 이성에게 가하지 못하는 폭력을
동성에게까만 적이 있다.



[표 2]

은 차별적 사고방식은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폭력이 다시 사고방식을 낳고 있지는 않을까? 취재 중 차별과 폭력이 뒤섞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고, 폭력으로 유지되며 상처로 남았던 우리의 차별적 인식을 들춰낼 수 있었다.

3장. 폭력을 폭력이라 부르지 못하고

♥ '가족' 이 지켜야 할 것.

[그림 2]와 [표 2]은 교내에서 겪었던 성적 폭력의 대한 사례와 빈도를 취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 같은 경우 동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집중하여 취재하였다. 남자/여자 기숙사로 나뉘어져 있는 기숙사 내 폭력이 대부분 거론되었고, 여기서 비롯되는 차별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폭력은 여

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신체에 대한 폭력’ 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타인의 몸에 대한 희롱부터, 불쾌한 접촉까지 “항상 나의 몸이 만져질까봐 긴장하게 된다” 고 말한 학생 A 같은 친구는 적지 않다. “내가 처음부터 남자 기숙사에 살지 않았다면, 같이 사는 ‘가족’ 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다” 는 학생 B에게 기숙사는 어떤 곳이었던 걸까. [표 2]에 답한 37명(54%)의 학생들은 이성에게 가하지 못하는 폭력을 동성에게 가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인해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잦다는 걸 취재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삶의 공간을 나누는 기숙사에서, ‘가족’ 을 추구하는 우리는 서로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걸까? 학생 B의 말처럼 우리는 학교(기숙사)라는 집단이 가진 인식대로 자신과 타인의 ‘성’ 을 받아들이고 있다.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희롱과 접촉들을 매일 경험하지만, 저항하지 못한 채 그러한 폭력들에 둔감해졌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폭력에 익숙한 몸이 되었을 때, 폭력은 장난으로 변질된다. 결국 가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남자 기숙사에서 사는 필자는 흔히 목격하게 된다.

♥ 그거 폭력이야.

“대체 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걸까?”

인터뷰 중 학생 c는 장난으로 포장되는 성적 폭력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우리도 모르게 성적

폭력은 웃음거리와 익숙함으로 전락한다. [그림 2]에 적힌 사례들은 모두 장난으로 여겨지던 행위였고, 피해자는 익숙해지고 무뎌져야 했다. 또한 강간과 같은 행위를 묘사하는 언행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사례는 우리의 폭력/혐오 감수성을 의심해 볼 대목. 공론화되어 놓고 보면 폭력적이라 느껴질 행동은 기숙사란 이유로 묻혀진다. 단체생활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성’ 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남 으로서만 운영되는 기숙사나, 밀집된 곳에서 이뤄지는 탈의 같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 역시 우리의 숙제로 남는다. 어쩌면 폭력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례들은 익숙함이 되었고, 익숙함으로 변질된 건 ‘당연한 것’ 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결국 혐오와 차별로 시작된 폭력은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낳는다. 6년 동안 폭력과 차별을 받으면서 생길 정체성과 가치관이 두렵다면, 겁내지 말고 화내고 저항하자. ‘내가 예민한건가’ 라는 질문은 치워두자.

“그냥 평소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마주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지.”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은, 사회전체에 만연해있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자라오면서 자리 잡은 문화와 구조다.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 학생 D는 위와 같이 말하며 난감해한다. 나와 타인이 행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들이 보이는 과정

은 불편함을 동반하는 것.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친구를 끈대와 진지충으로 욱하기보단, 귀 기울여주고 같이 고민해주는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혐오에 찌들어있는 사회 속에서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간디학교를 기대한다. “낮설고 꺾끄럽다


면” 더욱 관심가지고 공부하는 공동체를 기대한다. 자신이 저지르는 차별과 혐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



썸 풀겠음!

윤수민 기자(4학년)

모두가 궁금해 하는 간디학교의 연애사!
 2분기 주제인 '10대의 성' 에서 빠질 수 없는
 인간관계 속 설레는 감정과 연애사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베일의 싸여있던 다양한 썸들!! 함께 보러 가실까요?



고백한 썸

맛글 90	맛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	------	------	----	------

나 옛날에 고백한 썸 풀겠음ㅋㅋㅋ
 1년 동안 썸 타던 애랑 진전이 없어서
 고백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음
 근데 마침 썸남이랑 4.19를 뛰게 된 거임
 이 때가 기회다 하면서 뛰었는데
 썸남이 시간이 지나도 고백을 안 하는 거임...

나라도 먼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진짜 끝일 것 같았음.
 그래서 마음을 먹고 바로 만광에 나갔는데
 막상 나가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30분 동안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음
 그러다가 겨우 불렀는데
 썸남이 간담회를 한다는 거임...

‘빨리 끝내야겠다!’ 하고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음
 원래는 “옛날부터 너를 되게 좋아했고...
 이러이러 했는데 넌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착하게 말하려고 했음

근데 앞뒤 다 잘라 먹고 생각해 놓은 거 다 터지고(?)
 얼굴 보자마자 “사귀자”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 거임ㅋㅋㅋㅋㅋㅋ

근데 앞뒤 다 잘라 먹고 생각해 놓은 거 다 터지고(?)
 얼굴 보자마자 “사귀자”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 거임ㅋㅋㅋㅋㅋㅋ

순간 당황하고 있었는데 썸남이 “그래 사귀자”
 라고 말하지도 않고 듣자마자 웃으면서
 “미안해ㅋㅋㅋ”라고 하는거임...

미안하다고 하길래 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개가 내 어깨를 딱 잡고 테라스 의자에 가서
 “내가 이제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금방 먹고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거임!!

나는 중대한 일을 하나 끝내고 나니까
 엄청 줄리터라고ㅋㅋㅋ
 그래서 썸남한테 그냥 잔다고 했는데
 자지 말라고 계속 조르길래 안 자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잤음ㅇㅇ

별거 없어~ 그래서 현재는 내 남친!

맛글 90	맛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	------	------	----	------



처음 손잡은 썰

댓글 99 댓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나랑 씬 타고 있는 여자애랑 둘이 딱 붙어 앉아서 얘기하는 중이었음

쌈녀가 자기는 수족냉증이 있어서 몸이 차가운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엄청 따뜻하다면서 자기 손을 파리처럼 엄청 만지작대는 거임

ㅋㅋㅋㅋㅋㅋ
그 때 애가 나한테 눈치를 주는구나 생각했음 아무리 둔한 사람이어도 그건 알겠더라고ㅋㅋ

내가 좀 놀리려고 아무 반응을 안했더니 나보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면서 내 손 꼭 잡았음..ㅋㅋ

나중에 손잡고 싶으면 이 방법 써보셈ㅋㅋ

+개랑 있었던 썰 하나 더 풀자면

겨울방학 때는 서로 얼굴을 못 보잖음 그래서 내가 개 사는 곳 근처로 갔음

근데 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엄청 빨리 달려오더니 나를 겁나 세게 껴안은 거임ㅋㅋ

진짜 갈비뼈 부러진 것 같이 아팠음

진짜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구나....하면서 주마등도 스쳐지나감ㅋㅋㅋ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겨우 웃으면서 참고 데이트 함

아팠던 것만 빼면 엄청 좋았음...ㅎ

댓글 99 댓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흑역사 썰

댓글 86 댓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비 온 다음날에 땅바닥 진짜 미끄럽고 다 젖어있을 때 일임.

남친이랑 기숙사 올라가다가 장난치는 중에 갑자기 슬리퍼 위쪽이 텅 하고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양말만 신고 올라가고 있었음ㅋㅋ

내가 신발 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쓰러웠는지 남친이 업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싫다고 그랬는데 결국엔 업혀서 올라가게 됐음..ㅋㅋ

엄청 어두울 때 였는데 갑자기 물 웅덩이 앞에서 슝 하고 미끄러지는거임 순간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설마 설마 했는데 물 웅덩이 안으로 같이 넘어졌음ㅋㅋ

남친이 다리에 김스를 푼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내가 맨발로 부축해서 겨우 올라왔음ㅋㅋㅋㅋ 그 때 노트북 다 젖고 바지랑 윗도리 다 진흙 범벅 됐어 진짜 흑역사임...



연상 남친이랑 있었던 썰

댓글 122 댓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1. 감동썰
폐북을 하다가 다이소에 파는 곰돌이 인형한테 꽃혀서 남친한테 지나가는 말로 갖고 싶다고 했음 근데 갖고 싶다고 말한 당일 날에 학교에 있다가 그 곰 인형을 1시간 버스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사다 준거임ㅋㅋ
진짜 감동이었음 ...근데 뭐 지금은 다 지난 일임 전남친이지...

2. 엽기썰
내가 학교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을 때 었음 남친이 축구가 끝나고 옷 갈아입는다고 축구할 때 온 옷을 나한테 주고 간 거임ㅋㅋ 그 옷에서 당연히 땀 냄새가 나잖음... 그걸 왜 맡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굳이 내가 그 옷 냄새를 맡았음ㅋㅋ 진짜 옷에서 식초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그냥 돌려줄 수가 없어서 향수 뿌려서 돌려줬음 정확히 거드랑이에서만 식초냄새가 났어... 좀 충격적이었지만 축구하고 나서니까 이해함ㅋㅋ



짜남이랑 있었던 썰

댓글 146

댓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방학 때 일 때문에 짜남이랑 놀 기회가 있었음 ㅎㅎ
학교에서는 얘기도 많이 안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느낌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짜남이 엄청 친절하고 계속 웃고 그랬음

운 좋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서
둘이 버스를 타게 됐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임..
그래서 둘이 서 있다가 버스 자리가 딱 하나 난거임
개가 무거운 것도 들고 있길래 앉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앉고 나보고 앉으라고 자리 비켜줌... ㅎㅎ
비켜주고 옆에 서있으니까 들킵하기도 하고
설레더라고 ㅋㅋㅋㅋ

그 후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 까지 걸어가는데
비가 갑자기 오는 거임
편의점 가서 개가 우산 자기 돈으로 사서
나 씌워주고 우산 나 줬어 ㅋㅋㅋㅋ

요즘엔 카톡도 내가 보내면 칼답으로 답하고
단답 안하고 말 엄청 이쁘게 함

나중에 잘 되면 얘기 더 추가할게! 응원해줘



전화 통화하다가 심쿵한 썰

댓글 230

댓글쓰기

이전 글

목록

다음 글

짜사랑하는 사람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보고 싶어'로 잘 못 알아듣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임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고 싶다고.
보고 싶은 건 항상 그렇고"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00아 별 보는 게 오글거리는 게 아니고
이런 말하는 게 오글거리는 거야" 이랬음

그 때 그 사람이랑 별 보러 다니고 그랬을 때라서
둘이 엄청 웃었음
웃다가 내가 한 번 더 제대로 진지한 목소리로
"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난 안 보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ㅜㅜ

내가 헉... 하고 엄청 풀이 죽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널 안 보고 싶으면 너랑
통화를 하고 있겠냐" 그랬음 ㅋㅋㅋㅋ 진짜 설렸어...

근데 그렇게 말해 놓고
나랑 연애 안 함 이런 멍멍이 같은....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¹⁾

박우제 기자(4학년)

콘돔은 무엇일까요? 성인용품일까요? NO! 절대 아니죠. 콘돔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의료용품이며, ‘인간의 성생활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 호 특집에서는 1학년에 김유환, 정하연! vs 5학년에 오승택, 전하진이 콘돔을 사고, 만져보고, 배워가는 콘돔 리뷰&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콘돔을 체험하고 상세히 기록했지만, 너무 길어서 다 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리뷰는 학생들의 매우 주관적인 리뷰임으로 이점 유의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 1학년 - 김유환, 정하연

유환: 이거 다 다른 콘돔인 거야?

응!

유환: 우와 진짜 엄청 많다~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EVE Real003(일반형) 콘돔〉

하연: (개봉) 뭔가 떨린다.

유환: 떨려?

하연: 어... 이거 어떻게 퍼지?

유환: 봐봐 난 폼아.

하연: 아... (이해) 이렇게?

유환: 반대 방향으로 핀 것 같아.

하연: 오 성공했어! 근데 너(유환) 되게 서슴없이 잘 만진다?

1. 이 문구는 영화 지난해 개봉한 ‘킹스맨’ 속 명대사 ‘Manners maketh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을 패러디한 것이다. 성관계시 콘돔을 착용하는 매너를 지켜야 피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앞서 tvN ‘SNL 코리아’에서 신동엽이 콜린 퍼스 분장을 한 채 “명심하게. ‘매너를 지켜야 사람을 안 만든다’.” 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폭소를 이끌었다.

유환: (웃음) 이거 되게 촉감 이상해.
 하연: 미끌미끌하고 물컹거리는데?
 유환: 미끌미끌해. 해(?)를 만진 느낌이랄까?
 하연: 하늘에 떠 있는 해?
 유환: 어. (쿵쿵) 초코 냄새나! 화이트 초콜릿!
 하연: (쿵쿵) 아니야. 고무 냄새인 거 같아.
 유환: 그런가?



〈EVE ULTRATHIN(초박형) 콘돔〉

유환: 이거 뭔가 포장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이거를 펴보자.
 하연: 그래
 (적용 끝! 자연스럽게 펴는 모습)
 유환: 이것도 뭐 냄새는 화이트 초콜릿이랑 고무 냄새 나고.
 하연: 너 두 개의(EVE Real 003, EVE ULTRATHIN) 차이점이 구분되냐?
 유환: 아니. 냄새 맡아봐 둘 다 화이트 초콜릿 냄새난다니깐?
 하연: 이거는 아까 콘돔보다 얇은 것 같은데?
 유환: 올~ 그나저나 이거 정말 안 찢어진다. 너도 당겨봐!
 하연: (당겨보는 중)이거 안 찢어져.
 유환: 야 여기 잡아 봐.
 하연: (같이 엄청나게 잡아당기는 중) 읍!

유환: 이게 고무줄보다 더 쎄. (결국 찢어짐)
 하연: 미쳤어! 진짜 잘 늘어나긴 한다...
 유환: 나 근데 콘돔에 물 넣어보고 싶어.
 하연: 넣어보자!
 유환: 넣는다?
 하연: (물 넣음) 우와.(웃음)
 유환: 가지 같아.
 하연: 모양이 너무 이상해.



〈EVE Dotted(돌출형) 콘돔〉

마지막 콘돔은 까기 전에 설명서를 잘 테니 보면서 오이에 써어보자!
 유환: (설명서 읽는 중)유통기간 내의 콘돔을 사용합니다.. 콘돔에 유통기한이 있었어?
 하연: 아~ 2023년까지네.
 유환: 날카로운 부위에 닿지 않게 내용물을 꺼냅니다. 바람을 불어 정액받이가 말려 나온 쪽이 정방향입니다. 정액받이 끝을 잡아 공기가 빠진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하연: 뭐라고? 헛갈려. (웃음) 여기서 이걸 이렇게 잡아서?
 유환: 아니 거꾸로 했잖아.
 하연: 아 그래?
 유환: 어. 정액받이 끝을 잡은 상태로 받기된 성기에 착용한다. 사용 후?

하연: 사용 후라 생각하고 해.

유환: 사용 후 콘돔 링을 잡은 상태에서 파트너의 몸 밖으로 나온다. 파트너에게서 떨어진 상태에서 음경으로부터 콘돔을 제거한다. 사용한 콘돔은 중간을 묶은 뒤, 잘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이건 왜 하는 걸까?

사용 후에는 콘돔 안에 정액이 들어있겠지?

유환: 아... 아! 빼낸 콘돔에 중간 부분을 묶는다.

하연: 오 다 한 듯!

유환: 이렇게 하면 끝이야?

하연: 어. 아마도?

유환: 궁금한 거! 성인용 콘돔은 무슨 종류가 있어?

돌출형 콘돔과 약물 주입 콘돔 형 콘돔.

유환: 일반 콘돔하고 다른 점이 뭘까?



이제 체험이 끝났으니 최종 평가를 해보자!

디자인이 예쁜 콘돔, 냄새가 좋은 콘돔, 신축성이 짱짱한 콘돔이 무엇이었던 거 같아?

· 디자인

유환: 나는 이브 초록색 (EVE ULTRATHIN) 콘돔.

하연: 이브 연두색 (EVE Real 003) 콘돔.

· 냄새

하연: 이브 주황색(EVE Dotted) 콘돔. 냄새는 괜찮았어.

유환: 난 이브 연두색(EVE Real 003) 콘돔

· 신축성

유환: 아까 눌러보았던 연두(EVE Real 003) 콘돔 진짜 안 늘어났잖아.

하연: 맞아. 그거 엄청 안 늘어났어.

Best 콘돔과 Worst 콘돔은?

하연: Best 콘돔은 초록색(EVE ULTRATHIN) 유기농(?) 콘돔, 눌러봤는데 신축성 진짜 장난 없더라.

유환: 나도! 초록색 콘돔(EVE ULTRATHIN)이 좋았어. 이유는 청소년들을 잘 생각해주는 콘돔 같고, 냄새도 깔끔했어. Worst는 오카모토(aloe 003) 콘돔, 냄새가 확실히 이상했어.

하연: 같은 생각. Worst는 오카모토(aloe 003) 제품이야..

만약 실제로 쓴다면 어떤 콘돔을 써보고 싶어?

하연: 이건 쓰지 못할 것 같아. (이브 Dotted 콘돔) 돌기가 나 있는 게 싫어서. 만약 쓴다면 이브 연두 (Real 003) 콘돔.

유환: 이브 초록색(EVE ULTRATHIN) 콘돔! 뭔가 디자인부터 깔끔하잖아.(웃음)

체험이 끝나고 느낀 점!

유환: 세상엔 여러 가지 콘돔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을지는 몰랐고, 콘돔 살 땐 신중하게 고른다! 콘돔 잘 사용하고 올바르게 성관계

를 할 것! 이 정도?

하연: 신기했고 콘돔을... 잘 쓰자...!



♥ 5학년 - 오승택, 전하진

(승택: 시작하기도 전에 익숙하단 듯 만져대고 있음)

벌써 친해졌나보네.(웃음)

승택: 후후. 이것가지고 뭘.(웃음)

하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응!



〈EVE Dotted(돌출형)콘돔〉

하진: 이번엔 음... dotted 한번 까볼게.

(아무렇지 않은 듯 개봉하는 하진)

하진: (개봉 후) 오우. 끈적미끌 거려.

승택: 그게 대체 뭘 말이야?

하진: 어... 끈적끈적한 것이 발라져 있는데 만져 보면 미끄럽다는 말... 아 몰라.

승택: 우와! 이거 돌출형이잖아. 어떻게 샀어?

이브에서는 돌출형 콘돔을 청소년에게 팔아.

승택: 청소년한테도? 그거 불법인 거 아냐?²⁾

불법이지. 하지만 이브 콘돔은 청소년들에게 특수 콘돔과 성생활용품 팔기 위해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어.³⁾

승택, 하진: 우와 엄청나네.

승택: 나 한번 만져보자 손에 립밤 바른 느낌이야. (쿵쿵) 고무 냄새나고 굽기가 가늘지는 않아.

하진: (쿵쿵) 깻잎 냄새나!

승택: 깻잎? (쿵쿵) 뭔가 상쾌한 향이 비슷한 듯.

하진: 궁금한 거 있어. 근데 꼭 콘돔에 향이 있어야 해? 성관계를 할 때 그 향이 느껴지긴 할까? (웃음)

승택: 그러게? 날 수도 있겠지 뭐...! (웃음) 또 질문! 이 돌기는 관계할 때 느껴질까?

하진: 그래그래 그게 궁금했어. 이게 생각보단 얇아서..

느껴질 것 같아?

2.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3-51호는 청소년유해물건을 명시하는 고시이다.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유해물건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으로부터 격리시킨다. 돌출형 콘돔과 사정지연형 콘돔이 포함되어 있다.

3.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브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관련자료 .face - <https://www.youtube.com/watch?v=KjLlailSIZM&feature=youtu.be>

하진: 여자의 생식기는 상당히 민감하니깐 느껴지지 않을까?

승택: 근데 성교육시간에 수자쌤이 그랬잖아. 여자 생식기는 신경이 없다고, 그럼 안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진: 그럼 돌출형과 일반형은 무슨 차이가 나는 걸까?

승택: 모르겠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정도면 못 느낄 것 같아.

하진: 그건 맞는 듯. 너무 얇아.

하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여자한테도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졌잖아. 그럼 반대로 남자가 더 느끼게 하는 콘돔은 없어?

승택: 그거 발상의 전환이다.



<DUO PLAYBOY(일반형)콘돔>

하진: PLAYBOY! 이걸로 가자.

(깔끔하게 까버리는 승택)

승택: 이걸 색깔부터 다른데?

하진: 꼭 간장 묻은 것 같다, 굵기가 좀 두꺼운 거

같아, 이게 일반형이라고 했나? 기본적으로 조금 두꺼운 것 같네.

승택: 이거 매혹적인 냄새가 나 유혹할 때 쓸 것 같아. (웃음)

하진: 바닐라 냄새인가?

승택: 이 콘돔에 특징은 냄새 같아. 다른 것들과 다르게 고무 냄새가 안거든.

하진: 신축성 테스트해볼까?

승택: 음. 당겨보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니. 풍선 불어보자!

하진: 얇아서 중간에 터질 듯. (못한다는 표정)

승택: 하읍! 푸 (풍선 분 후)이야 이 콘돔 신축성이 엄청나네.

하진: 헐!

이제 오이에 콘돔을 꺼보는 체험을 해보자~

승택: 좋아. 나 끼우는 거 잘해~ (오이를 보며) 보통 남자 성기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런 크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끼워보자(웃음) 콘돔을 낄 때 정액받이를 잡고 바람을 빼주면서 끝까지 밀어 넣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면 끝. 와

하진: 무척 잘 아는구나?

승택: 성교육 때 배웠어.

하진: 어. 상당히 잘 들었구나?

승택: 근데 이거 기름이 엄청 많아. 다른 것보다 특히 많은 것 같아.

하진: 어 인정. 기름이 되게 많아.

승택: 듀오 콘돔은 꼭 안에 설명서 있어!

4. 일본의 콘돔 회사. 대표 상품으로는 0.03시리즈와 스킨레스 시리즈, 베네통콘돔(OEM)이 있다. 초박형 콘돔 계통에서 사가미의 사가미 오리지널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성병 예방을 위해 '위안부'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일본군에게 '돌격일변'이라는 콘돔을 보급한 전 범기업이라는 것. 지금의 콘돔과 달리 고무로만 만들어진 건식이며 물량이 부족해서 한 콘돔을 물에 씻어 여러번 재사용했다는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도 있다.

하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데…?

승택: 역시 외국기업인가? 흐흐~



〈okamoto 003aole(초박형) 콘돔〉

승택: 오카모토 꺼도 있네?

하진: 이거 유명한 거야?

승택: 디자인 표지에 003이게 두께일 거야. 얇은 콘돔으로 유명해 하지만 ‘위안부’에게 쓴 콘돔을 지원한 전범 기업⁴⁾이기도 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용법 설명서를 줄 테니깐 그거 따라서 꺼보자.

하진: (사용법 읽어보는 중) 음...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해보래

승택: 콘돔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어..., 2020년까지 조금 놀라운 정보였어.

하진: 콘돔이 찢어지지 않게 포장지에서 잘 꺼낸 뒤에

승택: (조심조심 찢었다.)다음.

하진: 콘돔 안팎을 구분하고 정액받이 부분을 비틀어 쥐어서 공기를 제거한다. 콘돔을 받기된 음경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풀어 내린다.

승택: 이미 다 아는 거네. 후후!

하진: 콘돔 링을 잡은 상태에서 파트너의 몸 밖으로 나온다. 파트너에게서 떨어진 상태에서 음경으

로부터 콘돔을 제거한다. 사용한 콘돔은 중간을 묶은 뒤, 잘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승택: 끝! 정말 어렵지 않았군. 3번째는 정말 깔끔하게 잘 끼웠다.

하진: 발전했어. 우리! (하이파이브)

승택: 궁금증. 보통 콘돔을 남자가 끼울까? 여자가 끼워줄까?

하진: 잘 아는 사람이 끼워 주겠지…?

승택: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깐 우리가 끼워주자!

하진: 이 콘돔은 젤이 들어간 거 같고, 느낌이 좀 퍽퍽? 아냐 뽀득뽀득 거러 이거 냄새는 좀 이상해. 너도 맡아봐.

승택: 알로에 냄새? 그냥 냄새가 별로 안 나

하진: 궁금한 거 있어. 근데 꼭 콘돔에 향이 있어야 해? 성관계를 할 때 그 향이 느껴지긴 할까? (웃음)

승택: 그러게…? 날 수도 있겠지. 뭐…! (웃음) 아. 생각났어. 오이에 콘돔을 끼우고 콘돔을 낀 오이를 다른 곳에 끼보는 체험은 안 해? 원래 그런 용도잖아.

하진: 그걸 할 수 있어?

크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 다음번에는 준비해 볼게…!

승택: 아냐 그럴 필요까진 없고. (웃음)



이제 체험이 끝났으니 최종 평가를 해보자!
디자인이 예쁜 콘돔, 냄새가 좋은 콘돔, 신축성
이 짱짱한 콘돔이 무엇이었던 거 같아?

· 디자인

승택: 이브 EVE ULTRATHIN.

하진: 이브 콘돔 전부.

· 냄새

승택: Real 003!!

하진: 그 콘돔이 냄새는 짱이었어.

· 신축성

승택: 딱히 그런 거 없이.

모두가 신축성 정~말 좋아.

하진: 응! 감탄스러워.

만약 실제로 쓴다면 어떤 콘돔을 써보고 싶어?

하진: 만약 쓰게 된다면, 이브 주황색 도트 콘돔을
쓰고 싶어. 궁금하잖아. (웃음)

승택: 오오, 나도!

베스트 콘돔과 워스트 콘돔은?

승택: 베스트는 아무래도 Real 003이지 않을까?

하진: 그냥 냄새고 뭐고 (Real 003)다 좋아

승택, 하진: 오카모토. 일단 ‘위안부’ 한테 콘돔
을 줬다는 거 자체가 맘에 안 들어. 냄새도 딱히 좋
지는 않고.

체험이 끝나고 느낀 점!

승택: 콘돔리뷰 참 새로웠고 이런 걸 해보는 것 재
미있었어.

하진: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었음!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 어른, 청소년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 모두 “사람 안 만들 것이면” 콘돔 잘 써줬
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콘돔리뷰에 참여해준 모
든 사람에게 감사로 전합니다.

부록 -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다!

1학년 콘돔 사러가는 길

혹시 콘돔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

유환: 아니. 거부감 들지 않아.

하연: 딱히 거부감이 들진 않는데 쉽진 않아...

학생도 콘돔 살 수 있는 걸 알고 있어?

하연: 성교육 때 들었던 거 같아.

유환: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 거 듣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안 거 같은데?

학생이 콘돔을 산다는 거에 대한 생각, 느낌

유환: 딱히 없어. 그냥 사도되는 거 아니야?

하연: 학생이라기 보단 그냥 콘돔 사는 게 뭐가.. 이상한 거는 아닌데 딱히 좋게 보이지도 않는?

지금 콘돔 사러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

유환: 묘해..

하연: 떨려(웃음)

콘돔은 처음 사보는 거야?

유환, 하연: 당연히 처음사지..

만약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학생이 무슨 콘돔이야? 안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행동할 거야?

유환: 경찰에 신고할 거야!(웃음)

하연: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 '청소년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편의점에 콘돔 사러 갔다 온 썰(說) 한번 풀어줘!

유환, 하연: 편의점에 들어가는 느낌이 무지 묘했어. 편의점에 콘돔들을 보이자 신기하고 그렸고, 편의점 계산대에 올릴 때 솔직히 너무 떨렸고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다? 편의점 아저씨가 너무 덤덤하게

계산해 주셔가지고 놀랐어. 아저씨가 너무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어.(웃음) 편의점에서 나올 때 손에 콘돔이 들려있으니깐 좀 새롭고 어색했어.



5학년 콘돔 사러가는 길.

혹시 콘돔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

하진: 그건 아닌 데 편하게 대하기는 어려워

승택: 거부감 안 들어 딱히 대하기 불편한 것도 없고.

학생도 콘돔 살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진: 원래는 몰랐지. 그렇지만 인터넷매체, 성교육 등을 통해 ‘콘돔은 뭐고 학생도 살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다.’ 라는 걸 알게 됐어.

승택: 알고 있었지. 인터넷에서 봤던 거 같아.

학생이 콘돔을 산다는 거의 대한 생각 혹은 느낌을 말해줘.

승택: 학생이나 성인이나 콘돔 사는 느낌은 비슷할 거 같아.

하진: 난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이 뭐뭐 콘돔을 뭐뭐’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청소년 평균 첫 성관계가 13.4세이고 청소년 첫 성관계 시 70% 피임을 안 한다는 걸 듣고 충격을 먹었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하고, 성(性) 과는 멀어야하고 그런 시선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콘돔도 못 사고 피임도 못하고 그러다 임신해서 낙태하고... 안타까워 그러니 콘돔을 쓰자! 라는 생각이야.

지금 콘돔 사러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

승택: 기대됩니다. 설렙니다!

하진: 그냥 그래... 아무렇지 않습니다.

콘돔은 처음 사보는 건가?

승택, 하진: 네! 당연하지요!!

하진: 아니! 너 초등학교 때 약국에서 사봤다며.(웃음)

승택: 아아 맞아.(웃음)

만약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학생이 무슨 콘돔이야? 안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행동할 거야?

승택: ‘친구 선물이에요.’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진: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편의점에 콘돔 사러 갔다 온 설(說) 한번 풀어줘!

승택, 하진: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콘돔을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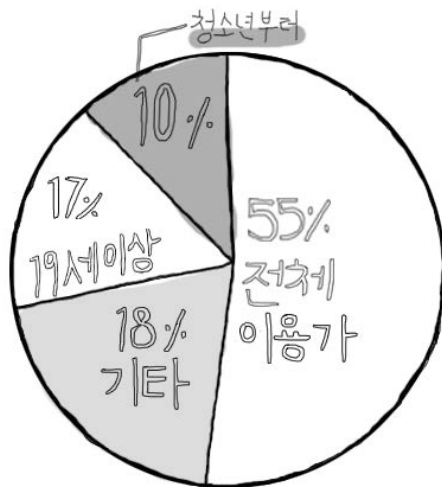
찾았어요. 한참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콘돔 어딴냐고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웃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산대에 올려놓고는 콘돔을 샀어요. 직원분이 좀 귀여운 애들이 성 관계를 하려는 구나라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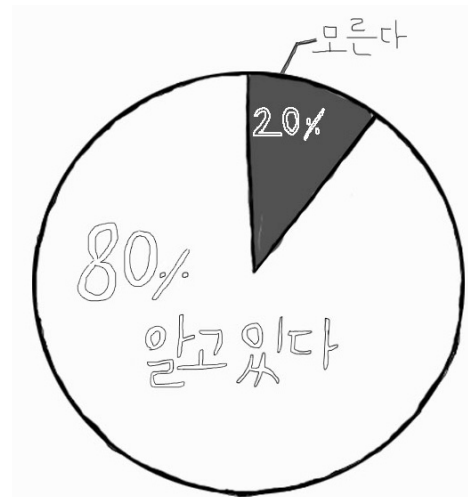
학교에 콘돔이 왔어요~

권윤서 기자(3학년)

우리학교 학생들은 콘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콘돔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는 피임도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콘돔은 성인만 사용하는 피임도구가 아닌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는 피임도구이다. 조금이라도 콘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학생들의 안전한 성생활을 권장하기 위해 학교에 콘돔을 비치할 시작하게 되었다. 콘돔을 비치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 사례 중 학교에 콘돔을 비치해줬을 때 성관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있다. 시험 비치하기 전, 사람들이 콘돔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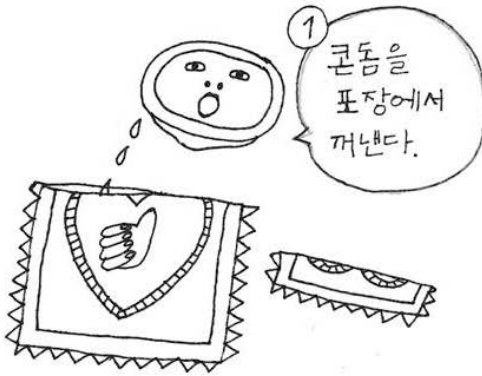
[그래프 1]



[그래프 2]

콘돔

사용법



1학년부터 5학년 대상으로 7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콘돔의 목적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96%는 알고 있다, 4%는 모른다고 답했고 ‘콘돔의 사용방법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20%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답했다. 80%의 사람들 중, 알긴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몇 세부터 콘돔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55%는 제한 없음, 17%는 19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18%는 기타(12세, 15세 등)라고 답했다. 설문지만으로는 부족해 여러 학생을 직접 만나보았다. 콘돔의 목적은 안다고 했지만 사용법은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콘돔을 떠올릴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물었을 때 ‘남자랑 여자랑 막 그리고 있는 장면’, ‘섹스’ 라고 했다.

5월 17일, 일반형 콘돔 하나를 오이에 끼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현관에 비치해두었다. 학생들이 콘돔을 보고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 정식 비치를 하기 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를 해두었다.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신기했다’, ‘좋았다’ 혹은 ‘그저 그랬다’, ‘아무 생각 없었다’ 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기분 나빴다’ 는 반응도 종종 있었다. 이번에 비치를 통해 콘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불편하다’, ‘왜 비치해둔 건지 좀 그렇다’ 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보는 간디인의 콘돔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으면 한다.

아직 정식 비치는 시작하지 못했다. 가정학습에 다

녀운 뒤, 콘돔 비치에 대한 ppt를 틀고 남,녀 생태 화장실에 정식비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콘돔과 함께 양심의 저금통을 두어서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할 돈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비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을 계기로 간디인들이 콘돔을 비치해 두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으면 한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교외에서 콘돔에 대한 인식을 바꿀려고 해봤으면 좋겠다. 교사보다 부모의 교육이 더 효율적이니 피임에 대한 교육이 각자의 집에서도 필요할 거 같다. 콘돔을 안 챙기고 섹스하는 건 나쁜 행동이 아니지만 뒷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 건 문제다.” 콘돔비치 프로젝트에 대한 한 교사의 의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콘돔을 비치한다고 해서 사용을 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용하려 했을 때 없어서 못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콘돔을 무슨 생각으로 비치했는지는 알지만 좀 별로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을 깨고 콘돔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피임기구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앞으로 콘돔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피임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콘돔을 편하게 받아드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던 코트에서 뛰니다.

이재형 기자(5학년)

먼저! W위시코트 캠페인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낡고 열악한 농구 코트를 새로 만들어주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캠페인입니다.

바람 wish

“몽계몽계” 발걸음을 따라 떠오르는 뿌연 흙먼지들은 30분이면 학생들의 몸을 뒤덮습니다. 흙바닥은 미끄러워 맘 놓고 뛰지 못하고 간혹 그러다가 넘어져 피 보기 일쑤지요. 또, 튀어나간 공은 땅이 수북이 쌓인 농구장 옆 퇴비장으로 들어갔다가 똥 묻은 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요. 시간이 나기만 하면 농구장으로 향하고, 가족회의¹⁾와 주여²⁾를 늦으면서 까지 공 한 번 더 던지려 하는 간디인의 농구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석한 농구장의 흙바닥에는 비만 오면 며칠씩 물웅덩이가 생겨 농구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라도 깔렸으면” 하고 더 나은 코트를 바라던 우리에게, 어느 날 W위시코트 캠페인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으로 새 농구장을 위해 모였어요. 바로 지금, 새로운 코트를 위한 한판승부를 시작합니다.

워밍업 warming up

4학년 ‘재하’가 위시코트 캠페인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말, 농구를 좋아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
1. 가족회의는 매주 금요일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삶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 주여는 매주 월요일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주를 여는 시간’입니다.

만든 페이스북 그룹에서였어요. 누가 WKBL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을 봤던 거죠. 낡은 코트, 농구하기 어려운 코트의 사연을 소개하면 몇 팀을 선정해 새 농구장을 지어준다는 말에 “이거다!” 외치며 자기가 해보기로 해요. 사실, 공에 똥 묻는 데서 농구를 한다고 하면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곧바로 처음 만날 1쿼터를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1쿼터 1 Quarter

1쿼터는 우리 학교 농구장의 사연을 글로 써 보내는 것! 재하는 자기소개와 우리학교 농구장의 상태를 글로 적었어요. 공에 똥도 묻고 사람들도 많이 다친다고 말이죠. 새로운 코트는 평소에 농구를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이 술술 나왔고 병곤쌤과 덕래쌤의 도움을 받아 수정까지 거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제출 기한인 12월 31일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 근데 여기서 상대를 흘릴 기가 막힌 전술을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맞춰 글을 보내는 거죠. 이를 통해 “농구장은 우리의 크리스마스 소원입니다. 산타가 되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작전이 통했는지 1월 1일 새해 아침 재하에게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WKBL 위시코트 1차 공모 결과’ 우리의 사연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메일이었지요.

2쿼터 2 Quarter

2쿼터의 관문은 UCC 공모였습니다. 난제가 있었

는데 그것은 때가 방학이었다는 것. 우리의 사연을 담으려면 우리의 농구장과 학생들이 나와야 하는데 방학이라는 난관에 부딪힌 것이지요. 경기는 더 힘들어지고, 상대는 편집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농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농구장 코트를 위해 학교에서 함께 UCC를 찍을 사람을 구한다는 재하의 말에 창범, 승훈, 승택, 태운, 태훈, 현호와 정상쌤, 경수쌤, 졸업생 원범이형과 독립영화를 찍으시는 오정훈 감독님까지! 한달음에 학교로 와주었다고 합니다. 마침 눈도 쌓여 더욱 열악해 보이는 농구장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영상에 담아 UCC를 완성했습니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에야 UCC를 보냈고(이것 역시 우리의 간절함을 전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었다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확인했는데... 어? 왜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겁니까?



3쿼터 3 Quarter

으하하. 알고 보니 검토 중이었다고 하네요. UCC 제출 후 1주가 지나고 어느 날, 재하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WKBL 홍보 마케팅 팀’ 이었습니다. “귀하의 2차 UCC를 대상으로 최종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최종 5팀

에 선정된 거예요. 맨 처음 공모한 100여개의 팀 중에서 말이죠. 재하는 정말 기뻐다고 해요. 또, 정상쌤은 이 소식을 듣고 “아 사랑한다. 나 너무 행복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ㅎㅎ 그리고 바로 한 주 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5개의 후보 중, 농구장이 세워졌으면 하는 곳에 사람들이 직접 투표하는 최종투표는 홈페이지 투표(40%), 페이스북 댓글투표(30%), 인스타그램 좋아요 투표(30%)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표를 얻는 것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재하는 투표에 앞서 제천간디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UCC 투표 방법을 알려주며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하는 그 후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글을 올렸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글들이 상상치 못한 저력을 보여줍니다.

팀플레이 Team play / 4쿼터 4 Quarter

재하가 제천간디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림과 동시에 간디인들의 힘이 나옵니다. 재하의 글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더니 각자 인맥을 총동원해 다른 사람들을 태그하고, 페이스북 투표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1일 1투표까지 잘 참여해준 덕에 첫 번째 날, 4쿼터의 시작과 함께 우리학교가 앞서나갔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2주의 시간동안 재하의 꿈엔 매일 위시코트 투표 장면이 나왔다고 해요. 어느 날은 순위가 뒤집혀 잠에서 깨기도 하고 우리가 최종 선정이 되어 정상쌤이 “아 사랑한다!” 외치시는 꿈도 꿔죠. 그 간절함이 이어져 1주가 지날 때까지 우리학교가 완전 앞서나갔습니다. 근데 경기는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변수

가 생겼죠.

작전 타임 Time out

재하가 어느 때와 같이 아침일과처럼 투표 현황을 보며 흡족한 상태로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는데 5개 팀 중 하나였던 경남 보건고등학교의 좋아요 투표수가 하루아침에 몇 백표가 오른 겁니다. “애네 좀 하네?” 근데 몇 시간 뒤에 보니까 몇 백표 차이였던 게 80표 차이로 좁혀지고 30표 차이로 좁혀지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몇 백표 차이로 우리가 2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제주 오현중학교는 학생 수가 700명이라고 하는데 언제 또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정상쌤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도 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촌에게 연락도 했지만 결국 인스타그램 투표를 다시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의 투표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해냄 Accomplish

투표가 종료되고 5일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곧 우리학교 농구장이 바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방학 중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상황도 보고 도안도 짤거라고 말입니다. 뭔가 얼떨떨했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말로만 했던 게 진짜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아스팔트보다 더 좋은 재질의 바닥이 깔리는 거였으니까, 공도 주고 기증식도 한다고 하니까 믿길 리가 있나요. 같이 UCC 찍었던 사람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감사의 글을 올리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학교에서는 4월 중순부터 농구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완성되는 농구장을 보며 학생들은 ‘내일’을 기다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방학 때 노력한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어 늘 뿌듯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농구장이 지어지고 5월 5일 대동제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대망의 코트 기증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프로농구 선수들도 오고 행



사 준비하시는 분들과 MC분도 오셔서 멋진 기증식을 함께 만들었고 간디인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프로농구 선수들과 같이 농구도 했는데 정말 이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던 코트에서 뵙니다. Wish court

농구장이 생기고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새 코트이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혼자서 농구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젠 늘 몇 명이 먼저 공을 튀기고 있습니다. W위시코트 캠페인을 통해 학교 사람들이 농구를 많이 접하게 됐고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리학교 농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새 농구장에서 농구 G리그³⁾도 하는 모습을 재하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농구장이 생기자마자 팔을 다쳤지만요. 하하하. 그럼 지금까지 이재형 기자였습니다! 바스켓 볼 뿌레버!



3. 농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개최하는 간디학교(G) 농구 리그입니다!



알뜰살뜰

조연지 기자(4학년)

은밀하면서도 끈질긴 조사 끝에 찾아 낸 간디 짱! 최강 알뜰이 최은솔(17학번)과 왕! 간디최강 살뜰이 이태훈(15학번)의 킹왕짱 한 인터뷰!!! 제일 많이 쓴 돈이 무려 10배차이가 난다는, 알뜰이와 살뜰이에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죠~ 어머~어머~ 너무 기대 된다. 그치!?

〈알뜰이 인터뷰〉

먼저 알뜰이 자기소개 부탁해~

알뜰이: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 17학번 최은솔입니다.

돈을 적게 쓰는 이유는?

알뜰이: 이유라기보다, 생각해서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절약을 하려고해.

평소에 적게 쓰는 꿀 팁은?

알뜰이: 사고나서 얼마나 오래 쓸지 생각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곳에 쓰는 돈이 가장 아까워?

알뜰이: 모든 게 아까워?(웃음)

알뜰이: 그렇긴 한데, 아까운데 쓰는 돈이 없어. 아까우면 안 사(웃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알뜰하게 쓸 것 같
아?

알뜰이: 응 그럴 것 같아.

돈 많이 쓰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알뜰이: 저걸 왜 살까(웃음) 대단해보여.

<살뜰이 인터뷰>

살뜰이 자기소개 부탁해~

살뜰이: 저는 1학년에 한번 화제의 인물을 해본
15학번 이태훈입니다.

살뜰이가 된 짧은 소감은?

살뜰이: 어우 제가 이런걸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 저보다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꿀 팁?

살뜰이: 생각없이 막 사요. 그러면(살뜰이)
될 수 있어요.(웃음)

돈 많이 쓰다가 거지가 될 것 같은 생각 해봤어?

살뜰이: 몇 번 들지. 그래서 지금도 돈 없어.

돈이 많은가?

살뜰이: 없어요. 많이 없어 모아뒀다가 한 번에
쏟아 붓는 스타일이라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뜰이: 최근 들어서 좀...

<알뜰살뜰 공통질문>

복권에 당첨돼서 10억이 생기면 뭐할 거야?

살뜰이: 저는 저축할거예요.(웃음)

알뜰이: 여행가고 싶어요.

나는 친구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

알뜰이: 어...6천원?

살뜰이: 만원까진 쓸 수 있어.

살면서 제일 크게 쓴 돈은?

살뜰이: 30만원 아이팟 살 때!

알뜰이: 3만원?

살뜰이: 10배 차이 아니야?!(웃음)

지금 당장 지갑에 얼마씩 들어있어?

살뜰이: 카드까지 합쳐서...? 현금은21000원 카
드에는 45만원

알뜰이: 4만원?

저금통에 얼마나 모아봤어?

알뜰이: 돼지 큰 것 하나랑 꼭 까진 모르겠고 많
이. 작은 건 하나

살뜰이: 큰 저금통에 절반이상 채웠는데, 돈 쓰고
싶어서 배 가르고 좀 쓰고 작은 저금통에 남 은거
꼭 채워놨어요.(웃음)

친구들이랑 놀 때, 얼마까지 써봤어?

살뜰이: 8~9만원

알뜰이: 2만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뭐야?

알뜰이: 먹는 것.

살뜰이: 나도 먹는 것.

물건 살 때 비싼데, 좋은걸 골라? 싼 걸 골라?

알뜰이: 질을 먼저보긴 하는데, 그게 너무 애매할 때는 가격을 봐.(웃음)

살뜰이: 일단 좋은 걸 따져, 질 다음 가격.

어떨 때 웃을 사?

알뜰이: 놀러 다니다가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 한번씩 살 때가 있어.

살뜰이: 계절마다 사. 여름 될 것 같으면 사고,겨

울이 될 것 같으면 사고

첫 기사예요!!! 두근두근 인터뷰를 보니 알뜰이와 살뜰이 둘 다 돈에 대한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화보도 인터뷰도 너무 정신없이 한 것 같아서 알뜰이와 살뜰이에게 많이 고맙고 미안해요! 다음에는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어요. 인터뷰하면서 알뜰이와 살뜰이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둘 다 웃음이 많아요.~ 흥흥흥 인터뷰와 화보 보고시는 분들도 알뜰이와 살뜰이 같이 씨익~ 웃어보세요~그럼 안녕~







제천간디학교의 든든한 뒷 배, 그는 바로

이성민 기자(3학년)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의 제18회 우정선행상 대상을 시상하여 많은 신문에 실린 그 이름!! 바로 제천간디학교의 후원인이자 대표님이신 김명철 대표님입니다. 간디학교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꼭 함께하고 계신 대안교육의 살아있는 역사! 김명철 대표님의 따뜻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천간디 교육공동체 대표와 부산 우다다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고, 산청에서 청담한의원을 하고 있는 (졸업생) 00학번 김난슬, 03학번 김다운 아버지이기도 한 김명철 입니다.

현재하고 계신 일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위에 적은 두 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고 성심원에서 한센인 주치의로 일주일에 한 번 진료

간디 계간

VOLXI - NO.4350

NEW ISSUE

SINCE 1865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은 제18회 우정(牛汀) 선행상 대상에 한의사 김명철(60·경남 산청)씨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신문 2018.04.26.

오운문화재단은 "편견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한센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한방봉사를 펼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한 점,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봉사영역을 꾸준히 넓히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2018.04.25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사장 이용열)이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회 우정선행상(牛汀善行賞)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대상을 24년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한방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는 한의사 김명철 씨(60·경남 산청)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18.04.25

를 하고, 7년 전에 산청으로 옮긴 한의원(청담한의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목화장터라는 자유 시장과 벼룩시장을 합친 형태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느슨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고, 최근에는 농촌에 들어와 살고 있거나 살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들을 계획 중입니다. 그 밖에도 '산청 열린 연대' 라는 정책 제안을 위한 모임, 60대 조기회 회장, 몸살림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어서 거의 쉴 수 있는 날 없

이 매우 바쁘죠.

저희도 호호장¹이라는 마을장터가 있는데 목화장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호호장과 다소 비슷한데 일단 주체는 '목화장터 나눔회' 라는 곳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편이고 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판매 물품을 친환경 생산물이나 자기가 직접 만든 것, 아니면 사용하다가 남들과 나눔을 하고 싶거나 싸게 팔 것들로 한정을 했는데, 그러니

1.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제천시 덕산면에서 열리는 장. 사단법인 간디공동체의 주민모임 '마실' 이 주체이다.



까 동네 어르신들이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열어두고 농약을 쳐도 어르신들은 그냥 오시게 하고, 공산품도 대부분 그냥 팔고 있어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2시부터 5시에 장을 여는데 그중 한 번은 꼭 음악회를 열어요. 음향은 빵빵해요. 하하.

2006년부터 제천간디공동체 대표를 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같이 건물을 지은 강당이 기억에 남네요. 그때는 도서관으로 지었었죠. 각 학년 별로 다

양한 물건들을 팔았어요. 옷도 팔고 십전대보탕도 팔고, 다들 신나게 참여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그리고 많은 돈과 시간, 힘들게 기숙사를 지은 것도 기억에 남아요. 설명회도 많이 하고 서울에서 일일 주점도 처음으로 해보고... 아픈 기억이지만 못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들어 먹었던 것도 기억이네요.

스스로를 제천간디학교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양샘²⁾이 저보고 '큰 나무처럼 그냥 있어줘서 고

2. 제천간디학교 1대 교장 양희창 선생님.

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간디 쌤들과 학부모들의 뺄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삼회' 라는 학부모 모임을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되게 오래된 학부모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삼회는 제천에서 삼 년을 보낸 김 병삼쌤을 담임으로 둔 02학번 졸업 학부모회인데, 졸업하고서 지금까지 10가정 정도가 변함없이 일 년에 서너 번은 꼭 만나요. 그렇게 만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생각도 비슷하다 보니 형제보다 더 가깝다

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거나(경수쌤, 후조쌤³⁾) 학교 근처에 살거나(쌍디네⁴⁾)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서(나와 진우빠 등) 학교에도 관심과 애정이 많은 편이에요.

코오롱 우정 선행상 대상 수상 축하드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상을 받으니 억수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하하... 여태껏 저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



3. 졸업생 02학번 김범린, 04학번 김혜림의 학부모. 현재 제천 간디학교에서 김경수선생님, 박후조선생님으로 계시다.
4. '쌍둥이네'의 사투리. 졸업생 02학번 이병건, 02학번 이병우의 집으로 현재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

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황부터 상을 받는 순간까지, 아니 상을 받고 난 지금까지도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수상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5년 전부터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이란 곳에서 시작해서 2001년 산청으로이사 온 후 한센인이 살고 있는 성심원이란 곳에서 무료 진료를 매주 해왔어요. 그래서 성심원에서 (후보로) 추천을 해 줬고, 그게 결정적 이유죠. 그리고 목화장터나 간디학교, 우다다 학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한센인 진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심원 자체는 한센인들이 줄어들니까 정신과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많이 받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르신(한센인)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 한 진료는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꼭 어르신들의 개인사를 기록해 두고 싶어요. 이들의 아픈 삶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래는 대안학교 학생으로서 저의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대안교육의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6년 동안 배운 철학들을 사회에 나가서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매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들을 보니 쉽지 않아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배운 것 들을) 지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래의 졸업생들도 잘 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졸업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절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졸업생들과 샘들이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면 훨씬 더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죠.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요.

마지막으로 제천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야망을 품으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색과 향을 그대로 당당하게 발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여러분 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따라올 거예요. 간디여러분 화팅!!!! 입니다.

김명철 대표님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직접 찾아뵙지 못해 메일로 인터뷰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제?’ 라는 제목으로 정성스럽게 답해주신 김명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사투리가 녹아있던 인터뷰,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도 앞으로 대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화팅!!! 입니다.





스물이기 때문에

12학년 졸업생 신동현

졸업을 하니까 어땠냐고? 그냥 방학 같았는데? 별 느낌도 없고 좀 있으면 다시 학교 갈 것 같고, 지금도 그래,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알바를 해야겠다.” 집 주변에서 시급 높은 데로 찾아봤어. ‘ㅇ가네 닭갈비’ 시급이 8,500원인 거야. 8,500원이면 꽤 좋잖아. 면접을 보러갔는데 어떻게 잘 붙었어. 홀 서빙 일을 했는데 되게 웃긴게 밥을 제대로 안줘. 닭갈비집이잖아. 그럼 적어도 닭갈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냐. 근데 일식집 가면 된장국 같은 거 있지. 그거에 밥 말아먹거나 고추장에 밥 비벼 먹거나 그래야 돼. 그것도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손님 없을 때 알아서 먹어야 하는 거야. 사장이 직원들을 배려를 할 줄 몰랐고 환경이 열악했어.

한 달 정도 하다가 내가 번 돈을 계산해봤는데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알바 시간을 늘려 달라고 했어. 원래 오후 6시간 일하는데 내가 오전에도 일을 하고 싶다.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게 해줘라. 사장님도 오케이를 했지. 근데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데도 밥을 안줘. 손님들이 남긴 닭갈비를 긁어모아서 먹어야 되는 게 되게 화가 났어. 그러다가 내가 일을 시작하고 두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손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4월이 가까워지면 개학도 하고 하니 손님들이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장이 임금을 줄이려고 갑자기 날 부르더니 “동현 씨, 내일부터는 오후만 나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화났던 거야. 사장이 근로자랑 임금 시간을 같이 조절을 해야 되거든. 내가 12시간 일하기로 했잖아. 근로시간을 바꾸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가 맘대로 결정을 못해.

1. 야마 둘다 :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신이 나가거나 화가 나 괴로워하다.

“이거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끈대야. “어린 것이 법을 그렇게 잘 아냐” 면서 완전 애로 보는 거지. 내가 완전 야마가 돌아서²⁾ 손님들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 그동안 쌓인 걸 얘기했어. 직원들한테 밥도 안주고 퇴근 시간이 9시인데 임금 아끼려고 8시 반에 퇴근시키나 8시에 퇴근시키고 그렇지 않냐.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사장이 그러더라. “네가 그렇게 잘 아냐?”

너무 화나가지고 오늘부로 그만 뒤야겠다. 옷을 갈아입고 사장한테 “직원들한테 그만 식으로 대하지 말라” 고 말하고 나갔어.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나봐. 또 날 잡고 훈계질을 해. 그러니 나도 야마가 도는 거지. 다 내려놓고 “모르겠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지하철로 가고 있는데 나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동헌 씨, 노동청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허? 대화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엷³⁾을 날리고 도망갔어.

운이 좋은 게 바로 그 날, 아는 지인에게 여기 직원을 뽑는데 해보는 거 어떠냐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붙었어. 그렇게 닭갈비집을 그만두고 이틀 후에 다시 초밥뷔페에서 일을 하게 됐지.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었고 닭갈비집보다 집에서 더 가깝고 수당도 더 좋았어. 되게 큰 음식점이고 분업도 잘 되어있었어. 나는 홀 서빙 이었는데 뷔페 가면 음식들이 짹 있잖아. 음식이 다 떨어지면 누군가는 채워야 될 거 아냐. 그거를 이제 내가

채우는 거야. 주방 사람들한테 “이거 음식 다 떨어졌으니 채워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려. 그러니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자기들은 매일매일 하는 거 또 하기 귀찮으니까 나한테 뭐라 해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나” 고. 누가 봐도 올려야 되거든. 이 정도 남았으면 먹기 싫으니까. 근데 안하겠다고 버티는 거지. 그럼 누가 욱 먹냐, 내가 욱을 먹어. 주방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

그러다 한 달 뒤에 신입이 들어온 거야. 사실상 한 달 되면 배울 건 다 배우거든. 내 분야 일은 내가 제일 잘했어. 근데 그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한명 더 들어온 거야. 그럼 내가 신입을 가르쳐야 되잖아. 이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타이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나이가 23이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내가 완전 어린애라고 짐찍은 거야. 내 말을 절대 안 들어. 내가 얘기를 할 때마다 “아우 귀여워, 애기” 이판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이 막 빼대거든.³⁾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고 얘기를 해도 “어우 애기, 말하는 것도 귀여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 받았는데 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두 달 정도 버티다가 이틀 전에 그만 뒀어. 11시간 30분 일 하는 것도 힘들고 되게 지쳐. 끝나면 10시지, 집 가서 씻고 자면 아침에 또 가야하지. 관두니까 완전 개꿀이야. 일하면서 느낀 건 사회에서는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밥으로 알더라.

2. 다섯 손가락 중 세 번째 손가락(중지)
3. 빼대다 : "느릿느릿 움직이다"의 뜻을 가진 전라도 사투리

내가 대체 왜 4개월 동안 힘들게 알바를 했냐. 그냥 막연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냐. 우리학교는 기숙학교잖아. 나는 계속 장기간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다녀야 해서 여태까지 못했던 말이야. 졸업하면 여행을 가야겠다고 학교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었어. 또, 내가 너무 일찍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얻은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 그럼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와. 마침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곳을 보러 가는 거야. 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일본에서 한 달 동안 현지인처럼 지내다가 올 거야. 졸업하고서 본격적으로 여행계획을 세웠고 지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알바를 시작했던 거지. 나는 6월에 여행을 갈 거야.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인턴 생활을 해보고 싶어. 3달 씩 한 1년 동안. 나는 공익⁴⁾이거든. 공익 가기 전까지는 학원 다니거나 인턴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공익은 언제부터?

아직 신검도 안 받았어. 여행가는 데 신검을 왜 받아. 갔다 와서 받아야지. 지금까지 신검 통지서가 3번 날라 왔어. 볼 때마다 짜증나.

4. 사회복지무요원

간디인의
짧은 소식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1/2/3 5월 15일 스승의날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축하 공연도 하고 상장도 전달 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5/6 5월 19일 중등 삼간디 축구 : 제천, 산청 금산 간디학교 중등 친구들이 모여 축구를 하면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서로서로를 응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8 5월 4일 전야제 : 날씨는 추웠지만 모두가 불타는 전야제였습니다. 누구하나 빠짐없이, 해야 할 일들은 제쳐 놓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9 5월 5일 위시코트 : 이번 대동제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위시코트 증정식이었습니다. 선수 분들과 학생들이 함께 농구를 하며 모두가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10 5월 22일 오픈 하우스 : 주제에 맞게 기숙사 방을 꾸며 남녀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함께 노는 오픈 하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호러, 코난, 유치원, 타짜 등 다양한 주제에 맞게 잘 꾸며준 친구들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1/12/13 한끼대접 : 이번 학기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각 반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었습니다. 냉면부터 탕수육, 돈가스 덮밥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즐거운 식사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조리사 쌤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14/15 5월 25일 노작의 날 : 어김없이 돌아온 노작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교생 모두가 모여 열심히 풀을 뽑았습니다. 덥고 힘든 노작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며 풀을 뽑는 친구들을 보며 끝까지 다 함께 웃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BASKET

5/13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가세요
안녕히오세요
안녕히자세요
안녕히쉬세요
안녕히놀세요
안녕히먹세요
안녕히마시세요
안녕히자세요
안녕히쉬세요
안녕히놀세요
안녕히먹세요
안녕히마시세요
안녕히자세요
안녕히쉬세요
안녕히놀세요
안녕히먹세요
안녕히마시세요

WISH COURT 스포츠도
WISH COURT

NON-FE



저기나, 음, 아미가네,
10월 15일은 큰 비와
죽어있는 한 사람도
8

!! 거기나, 아미가네,
3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3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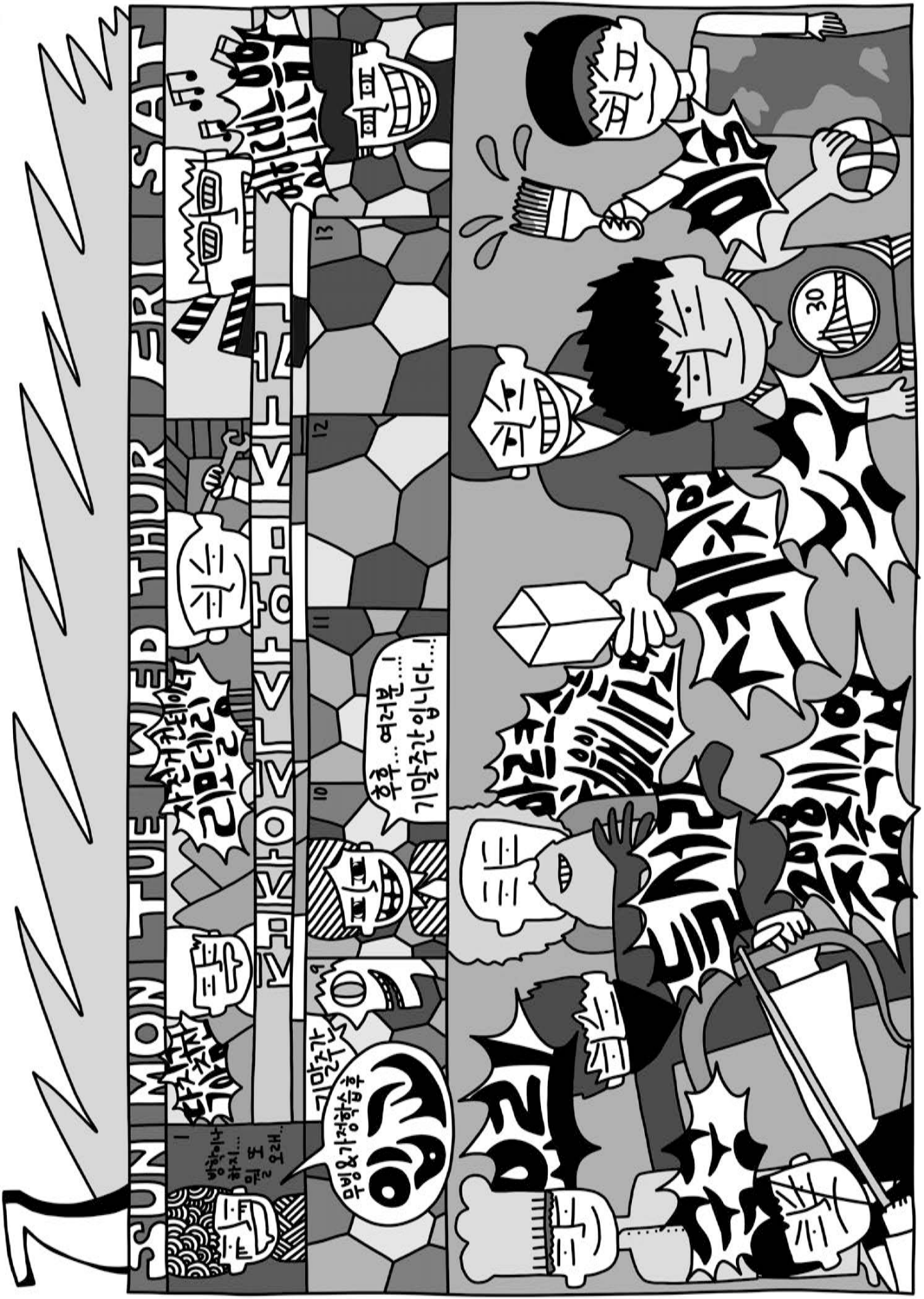
저기나, 음, 아미가네,
죽어있는 한 사람도
10월 15일은 큰 비와
죽어있는 한 사람도

저기나, 음, 아미가네,
3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3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3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2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3월 15일은
죽어있는 한 사람도



☆2019학년도☆ 제천간디학교 신입생 모집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제천간디학교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 통합 6년제 과정입니다.

◎ 모집정원 : 중학교 1학년 20명 내외(남녀공학)

◎ 모집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가.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홈스쿨링 및 비인가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가능)
- 나.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형일정

가. 학교 방문의 날(입학설명회) :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학교 체험의 날(가을축제) : 10월 6일 토요일

다. 1차 전형(서류전형)

(1) 원서 교부 : 9월 15일(토)부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부)

(2) 원서 접수 : 10월 1일(월) 부터 10월 15일(월) 까지

※ 우편접수는 본교 도착분에 한하고, 팩스나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① 본교에서 정한 입학원서

② 본교에서 정한 입학동의서

③ 본교에서 정한 학부모 설문지

④ 본교에서 정한 학생 설문지(자필로 적기)

⑤ 본교에서 정한 교사소견서

(담임 또는 학생을 가까이서 1년 이상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

⑥ 6개월 이내에 찍은 가족사진

⑦ 비폭력서약서

⑧ 전형료 : 20,000원 (반드시 학생 명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10월 18일(목) 학교 홈페이지 게시

라. 2차 전형(신입생전형캠프 및 면접)

(1) 일시 : 10월 26일(금) ~ 28일(일) (※ 숙식비, 학습활동비 별도 부담)

(2) 장소 : 본교

(3)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10월 29일(월) 학교 홈페이지 게시

마. 3차 전형(추첨)

※ 2차 전형 결과 합격자가 정원수와 일치하면 추첨전형은 하지 않습니다.

바. 신입생 예비학교

(1) 일시 : 12월 중 (추후공지. 단, 숙식비, 학습 활동비 별도 부담)

사. 합격자 등록 : 12월 중

※ 신입생 전형 캠프비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 전형 서류는 홈페이지(<http://gandhischool.org>)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미비자의 경우 접수에서 제외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홈페이지 : www.gandhischool.org / 전화 : 살림터(행정실) 043)653-5791~3



기자 후기
Wwida
↓



김담 사진기자(4학년)

이번에는 화보를 찍어보았습니다!

사진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까지 하는 과정이 피곤하긴 하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되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호 재밌게 봐주시고 가을호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김서준 글기자(2학년)

요번 호 정말 뻘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 첫 사설도 써보고 새로운 걸 경험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했어요! 하지만 마감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어요ㅠㅠ 다음 호에는 마감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하 삽화기자(4학년)

너무 늦었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훌쩍



박우제 글기자(4학년)

처음 녹취를 다 풀었을 때 12페이지 나왔었는데 줄여도 줄여도 안 줄어지는 마술! 덕분에 마감 못지켰어요. ^7



윤수민 글기자(4학년)

무사히 기사를 내보냈지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하 도와준 일상다반사 여러분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담 삽화기자(2학년)

우왕~ 모두모두 수고하셨고, 열심히만 하지 않고 잘하는 삽화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글기자(3학년)

이번호도 마감을 지키게 되었네요ㅎ

덕분에 과자를 안사고 실컷 먹을 수 있겠어요! 오예★

저는 두 호 연속으로 비특집이네요..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호엔 특집에서 보길 바래요~!



이한결 글기자(5학년)

글을 쓸수록 저의 부족함이 드러난 기사였습니다. 잡아뱐던 무게가 여러분들께 전해졌음 좋겠습니다.



조연지 글기자(4학년)

모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짝!도와주신모든분께 감사에박수를 짹!



조예나 글기자(1학년)

요번 호엔 열정만 너무 앞서서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다음 호엔 열정과 실력도 같이 앞설 수 있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열심히 이번 호 열심히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기사 쓴 언니, 오빠들 정말 수고 했고,정말 많이 도와준 서준 언니, 한결 오빠, 성민 언니 너무 고마워요!!!!



최문형 사진기자(5학년)

굵적 마감 끝났다가 즐거운 여름호~ 우리 무빙 끝나고 만나요~~



최유경 편집장(5학년)

짧은 시간에도 부족함이 많은 편집장입니다. 항상 쓰고 싶었던 주제의 여는 글이, 읽는 분들께 적절한 온도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서 사진기자(1학년)

처음같이 참여해봤는데 아직 많이 어설프고 못해도 잘 봐주세요!!



이재형 글기자(5학년)

여름이 되고 하니 내가 간디인에 첫 기사를 쓰지 일년이 지났네요. 1년이 지나도 마감 근처에서 허덕대는 나는 껍껍. 기자분들 모두 수고했어요. 동헌이형 재하도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후원 407명 814건 12,038,000원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미리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영상 강영택 강재은 강치호 강호수 고경태 고수원 고은주 고지철
 고희라 공지환 광영현 광용호 구경만 구자민 권승호 권영숙 권호정 김가영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수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식 김구환 김남수 김대석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백영
 김병섭 김봉자 김삼부 김상덕 김선화 김선희 김수진 김승진 김아미 김영경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철 김왕균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위정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윤하 김은미 김은숙 김정라 김정미 김중성 김중우 김중원 김중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혜 김창년 김학규 김현기 김혁동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란 김혜숙 김혜정 김호연 김희균 나동은 나영미 나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덕산LG주유소 도수경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마석훈 마정에 명보산업개발(주)
 문성룡 문신호 민병선 박경애 박경일 박경호 박경희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정 박미향 박서영 박선에 박성수 박영문 김숙정 박영
 선 박인옥 박장식 박진수 박현숙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박효정 박홍식 방대현 배영수 배필는 백미숙 백병부 변기영 빈종일 서자스민
 서홍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순희 손정민 손정현 손진근 손진윤 송민혜 송지은 신동운 신윤숙 신주영
 신지성 신지수 신한솔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종철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춘자 안희진 양병만 양상모 양송이
 양정호 양화숙 양후남 어룡수산(주) 업상순 여지현 오경석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정훈 용석희 우성섭 우성호 우종걸
 원정석 원현규 유경오 유병식 유선기 유아름 유아희 유원유통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준선 유지상 유춘자 유택규 유향옥 윤민호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승재 윤양수 윤은주 윤정숙 윤호선 은종복 이경희 이광일 이근행 이기호 이도연 이동우 이명조 이미경
 이미숙 이민수 이민주 이민지 이병규 이보완 이불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선에 이선재 이성호 이소안 이수미
 이순영 이순화 이슬비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시하 이영주 이오순 이용수 이원범 이윤종 이윤철 이은정 이은희 이인호 이재성 이재웅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연 이정열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준용 이지은 이진우 이철희 이한복 이한진 이향미 이현주 이혜림
 이흥규 이희경 임남규 임다운 임반석 임병포 임봉규 임선일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영순 장진숙 장희숙 전경희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해룡 정나형 정다운 정문자 정상인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정민 정종명 정지는 정철 정태규 정희정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성은 조숙자 조영도 조옥순 조윤정
 조은아 조찬규 조하한 주주자 지명석 진성기 진숙경 진은주 차상진 차영순 채신자 채현자 천희진 최경주 최낙진 최도연 최문택
 최민현 최범식 최선주 최선희 최소영 최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웅 최인화 최일훈 최재화 최종현 최진웅 최철훈 최철석 하승렬
 하여아 하윤주 하중수 하태광 한광택 한민경 한현 허누리 허미경 허영순 형제수산 흥금자 흥수연 흥수정 홍영옥 홍채현 홍현일 황국덕
 황들남 황소연 황현정 (주)두인기전 (주)우영산업

* 13창수네 자두 3박스, 쌀 200kg 후원해 주셨습니다.

* 17선영 어머님께서 짐로프 2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 653-5791 / 팩스 043) 653-5798

